

이 적어내는 速記士의 偉大性에 처하여 그 功績을 獨이 輝赫치 染을 수 없다. 數百年來에도 速記士가 記錄한 速記 缺은 도서관마다 備置되어 있어 自표시 覽을 수 있는 資料가 될 것이다. 速記士의 私生活은 染을 수 없으며 公生活에 있어서는 社會士로서 名譽가 있다. 速記士를 가르켜서 「거짓말을 모르는 人向」이라고 하고 있다. 「거짓말 모르는 人向」처럼 人向으로서 地位가 높은 人向은 없다. 政治家은 거짓말을 말기하는 人向이라 한다. 그렇다면 政治家와 速記士, 나와 速記士 이는 介明히 좋은 差照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을, 모르고 平和스럽게 行動하는 眞實한 速記士가 많이 생겨야 한다. 하늘의 음성을 速記하는 眞實한 政治家, 國民의 正當한 輿論을 速記하는 言論人, 正義와 國利民福을 위하여 忠實한 政治家, 正當한 經濟人, 이 모든 部門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고 바른 主義主張을 速記하여 이를 實行할 수 있는 眞實하고 거짓

모르는 速記士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거짓없는 眞實한 速記士로부터 받은 大刺敎訓은 나의 政治生活에 많은 「포라스」를 하여 주실 것이다.

X X X
 (48 號 - 지의 계속)
 이 高堂권을 빠져나갈가 하는 마음에서 말을 옮기는 등뒤로 「빨리 파내지 못하겠어!」 학생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X X X
 (53 號 - 지의 계속)
 한다. 또 速記士도 어느 곳에 가도 우대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眞實히 注意하고 速記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필자는 처음에도 쓴 바와같이 速記의 妙法은 門外漢이기 때문에 速記하는 법을 보아도 왜로 弄은 感覺을 느끼지는 못한다. 다만 신통하다든지 뿐이다.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가 하면 볼라온 뿐이다. 나도 저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생긴 뿐이다.

(筆 高 大 生)

(12)

(61페이지의 계속)

大邱

大邱市内에는 昨年度에 처음으로 本式 遊記를 教育하는 高麗遊記學院이 誕生하여 있고 陸軍高級士官學校 遊記班이 活躍하다.

軍部

光全遊記學 西武武中에서도 優秀하다고 公認받은 本式은 軍部側에서도 認定을 받게 되어 禮紀四二八는 특별히 陸軍高級士官學校內에 遊記班을 設置하여 本式 遊記士(現役軍人)를 養成하고 있으며 韓僑 僑領의 海軍徐令學校에서도 本式을 採択하여 教育中에 있다

이와같이하여 韓僑에서는 勿論 軍部에 까지는 本式의 優秀性을 認定하여 허가할 수 있. 陸軍數의 遊記士가 輩出되고 있다.

X X X

(63페이지의 계속)
一定한 目標도 없이 入學하는 學生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現社會에 있어서 靑少

年들이 浮遊한 精神狀態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보나 寒心스럽다

물론으로 入學途路에 있어서 보면 新聞 廣告가 斷然 優勢하다 勿 五十七와 一천드. 다음이 親旧의 권유로서 十八과 一천드. 몇개는 雜種인데 이로써 보면 遊記界의 泡動이 미약하다는 것음 如其히 寫眞하고 있다 即 此外의 泡動을 定期 或은 수시로 刊行物은 採擇하여 一般에게 贈을 시킬수 있다면 新聞보다 物價가 크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新聞에만 依存하고 있다는 것은 勿論 對面는 其他 途路가 많겠으나 그 方面에 是正함이 있어야 하리라는 結論은 되지않을까?

(同門會 文化部 提供)
X X X



外



議會에 있어서 速記士의 必要

서울特別市
議會議長 金溶鎰

외

近代國家가 巨大한 人口를 가지고 있고 巨大한 領域에 屬하여 存立하기 때문에 國民이 直接 政治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하게 되었다. 여기서 不可不 國民의 政治權은 自己의 代表者를 選출하여 行使되고 國事の 處理은 이들 選출된 代表者에게 一任할 수 勞에 假게 되어 近代民主政治는 必然적으로 「代議政治」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現代民主政治는 아무도 의심할 바 없이 議會를 中心으로 하여 行해지는 것이다.

國民이 選출한 代表者들은 國民의 公共의 利益을 實現토 代表하기 위하여 公衆의 場

議會에 逢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全體의 利益을 利한 方法에 關하여 그들은 相異한 意見을 表明하고 討論하는 과정에서 數人公的 數的인 一致된 國民意思인 政治的 意見을 發見한다는 것이고 多數黨과 少數黨은 그들의 政見을 主張하고 相互批判 相互 說得하므로써 相對的인 真理를 얻어 이 相對的 真理에 國民이 服從한다는 것이다.

國民主權主義에 立脚하는 直接的 國民의 政治參與을 許容할 餘地가 近代政治에 있어서는 不可能하게 되는 各種의 制限이 互在하는 以上 議會가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代辦하는 機關이 되는 것은 理論上 是認되지 得

(14)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意見代表의 機關으로서 議會가 存立하는 根據의 本質은 議會內에 있어서의 議員의 拘束狀은 意見發表의 保障인 것이다.

議員은 議會내에서 自由스럽게 또 아무 拘束없이 意見を 表明한다 이것은 議員의 特殊의인 特別的意見表明이 선거한 國民의 보편적 全体的 意見과 合致된다는 點에서 保障되는 하나의 特權인 것이다. 議員이 議會內에서 完全한 意見表示를 가지고 法的 制約조차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議員의 意見表示는 議會의 性格上 國民의 權利 自由 의무에 對한 影響을 준다는 것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따라서 議員의 意見表示가 法的으로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國民에 對해서 政治的 道義的 責任을 負免할 수 없는 것이다.

言論은 一定한 方向을 출러 순간적인 拂向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次후에 그 發言에 있어 正確한 意

思를 再生시키기 困難하다 여기서 時間的 空間적으로 極히 制限된 發言을 永久하게 正確하게 保存하는 것은 議員의 發言이 國民의 權利 自由 義務에 미치는 甚大 性에 비추어 絶對 必要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서 議會에 있어서 議員의 意見을 精確하게 記錄하는 速記士는 國民의 自由 權利를 위한 중요한 存在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以上은 議會를 中心으로 하여 論한 것이나 議員의 議會에 있어서의 發言에 對하여 法的 保障도 없고 또 地方自治團體의 特殊한 固有의 利益을 侵害하는 弊害가 起 起된 各種 地方議會에도 그 本질만은 適用될 수 있으리라 믿는바이다.

四
收



★ "議會政治와 速記"

民議院 法制編查局 張 集 商

(一)

近代的 議會는 그前身은
 로마 中世西歐羅馬 諸國의 諸
 族會議 (*Stände Versammlung*)
 이라는 것은 封建時代의 會議
 制度이며 大體로 말하자면
 當時社會에서 勢力이 있던 宮
 臣 封建諸侯 僧侶 武士 및
 手工階級等의 代表者들의 封
 建的인 會合이였다

即 十 = 世紀 부터 十三世
 紀에 이르러 歐洲多大國의 國
 會에서는 貴族 僧侶 市民 의
 三階級의 會議가 成立하였는데
 이것을 普通 三族會議 (*Three
 estates*) 또는 等族會議라고
 한다

이 等族會議는 特權貴族의
 君主에 대한 諮詢的 使命을 다
 하기 위함과 同時에 他國封建
 法下에서 自己의 權利를 防
 護하기 위하여 出現된 制度
 이다

이런 等族會議는 그組織
 에 있어서 近代議會와 다른

뿐만 아니라 그本質에 있어서
 도 判異하다 等族會議는 國
 民全體의 代表라는 性質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國民中의
 一階級만을 代表하는 것이
 며 그 代表하는 意味에 關
 해서도 近代의 議會와는 全
 然히 所謂 自由代表 (*Free
 representation*)로서 國家
 自身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選出한 것은 當然히 國民全體
 意思를 代表한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 아니고 等族會議의 代表
 는 命令的 委任 (*Imperative
 mandate, Mandate imper-
 atif*) 인 것이다 命令的 委任
 은 選出자로부터 指揮를 받
 고 그 指揮에 따라 行動해야
 하는 것이고 그 行動의 結果는
 그의 選出자인 國民에게 報
 告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만약 그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면 때에는 罷免된다는
 豫則이 確立되어서 嚴格한
 의미에서의 法的代表關係가

있었던 것이다.

중세의 等級會制은 위에서 본바와같이 近代의 議會와는 그性質을 달리하고 있으나 國王의 立法權 及 課稅權의 行使에 涉하여 各地方의 代表의 見地에서 議會의 役割을 해한것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中世의 封建的인 等級會制가 奔逸하여 오늘의 國民的 議會가 出現한것이라고 하지만 舊制君主들이 民族國家를 建設하게되자 구라과 大陸에서는 大領土의 等級會制가 自身衰微되거나 有名無實하게되었으나 오로지 英國에 있어서 만은 여러가지 理由로 因하여 鞏固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十七世紀의 滿蒙從革命과 名譽革命을 거친以後로는 近代的인 議會로 發展되었던 것이다. 그市 英國의 完備한 議會制度를 본받아서 美口과 佛蘭西에서 各々 議會制度를 採擷하자. 歐羅巴大陸 및 其他各口에서도 議會制度를 採擷하여 民主政治의 하나의 形態로서 今日의 議會政治가 確立 되었다.

(二)

議會政治는 民主政治의 一形態로서 議會制度에 依한 代議政治이다. 말하자면 向接民主政治이다. 封建專政의 反抗運動에서 出發한 民主主義의 先驅者들은 直接民主主義를 取尙의 理想으로 한것이 었다. 主權者로 自認하는 國民이 直接한곳에 모여서 그의 政治를 實踐하고 實踐化한다것은 그目的論的 見地에서 볼때에 극히 自然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大領土 大人口의 國家 터구나 二十世紀의 階級 制의 國家에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明百規大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國民의 直接統治가 아닌 代議政治를 取하게 되어 모든 國家는 代表機關으로서 議會를 設置하고 國家의 權力 機關을 正當化 하는 唯一의 機關으로 삼고있다. 國民中에서 選출된 代表者가 一定한 天에 身會하여 國家政治의 方向을 決定하는 것이다. 따라

서 敎會政權은 만드시

- 1) 口民의 代表權에 依하여
- 2) 公衆의 集會에 있어서
- 3) 村政을 결치서 決定하는 制度이다.

첫째 敎會政權은 口民의 代表者가 政權에 參與하는 것
이므로 그 代表者는 尙當 모든 口民을 土當로 하고 있다. 위
에서 보아 온바와 같이 中世
政權에 있어서의 特權會社의
代表者는 어느 階級만을 代表
하고 있으며 會社에 있어서
憲法表示도 選出者로부터의
지휘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近代의 敎會는 聖徒들의 會
社會社에 依하여 敎決함 것은
當然히 口民의 憲法를 代表
한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여기에 敎會政權에 있어서의
憲法의 必要性은 있는 것이다.
卽 敎會에서 代表者가 自由
憲法에 依하여 表示한 憲法
나 敎決은 口民의 憲法나
敎決인 것임으로 이를 그대로
憲法하여 口民에게 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役單은
곧 憲法인 것이다. 特權會社에
있어서와 같이 命令的委任을
받지 않고 있는 敎會政權에 있

어서의 代表者임으로 그 行動
의 實지만큼 記錄하지 아니하
고 그 生動 그대로를 記錄하
여 選出자인 口民에게 不懈
히 알리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口民은 憲法에 나
라나 記錄을 通하여 自己가
選出한 代表者의 行動의 結果
를 알고 이에 對한 批判과
評價를 하게 될 것이니 憲法
은 口民의 좋은 條件이 될
것이다.

둘째는 敎會政權의 公衆性
에 關한 向題이다. 옛날에 있
어서 政權이 몇 사람의 選出
자에 의하여 運用되었던 것을
보면 口民앞에 政權을 公衆
하므로써 政權의 公衆性을 期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公
衆性이 要求되는 것인데 이
公衆性은 반드시 自由스러운
憲法의 表明과 胎育되어야
하는 것이다. 公衆의 集會에서
無權스러운 憲法가 表示된
그 狀態를 自由로 出版(憲法)
하는 것은 極權主義者들의 暴
政과 專政에 對하여 抑制力
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對敎性이란 것은 여러

가지의 서로 쳐오르는 見解
를 解解시키서 하나의 結論
에 이르게하는 과정인데 이
여러가지의 돌리는 意見은
討議하여 하나의 結論에 到
達케함에 있어서 이른바 多
數次의 擧げ이 適用되는 것이
다 議會政體는 多數次에 依한

政體라고도 할수있는 것은 이
런 까닭이다

이런 討議를 결쳐서 次
定에 到達하는 議程圖程은
記錄하여 國民에게 널리 알
리는 構造的 役割을 担当하
고 있는 것은 議記일 것이다
X X X

速記의 新聞

自由新聞 尹章奎 論說委員

速記의 重要性은 人間生活
의 複雜화와 變遷하여 加重
되서갈 뿐이다 사람의 生活
이 變遷한 時代에는 文字의
必要부러가 그다지 切實한 것
이 아니었다 다시말하자면
모든것을 記述으로서 充足할
수 있고 文字로 그 意思를
충족하는 代價에 直接 間接
의 關係으로 口頭로써 目的을
達成할만한 時間의 여유도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人類文化
의 前進에 따라서 意思表示
를 위한 言語代身의 文字가 생
겼던 것이고 人間生活이 갈수
없이 複雜해짐에 따라서 文字
以上の 迅速簡便한 表現과

記述方法이 必要해졌다 그要
求의 充足으로써 代表的인 것
이 速記術인 그것이다

速記는 待할것도 없이 時
間과 精力을 最高度로 節約
하는 現代的인 文明의 象徵
으로서 一般의 경우나 國家
社會의 경우를 莫論하고 그
向上發展에 關係하는바 크히
크다

速記術의 活用범위는 各
種의 學校에서의 강의 라디오
청취 討論會 口會 其他 記
事 記錄 機關 및 團體 등의
會談 電話 內容의 記錄 其他
에 걸쳐 枚擧할수 없을 정도이
어서 一言으로서 蔽之하자면

五
內

우리의 日常生活을 알기함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技術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필자가 말거 하려는 신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迅速과 正確」를 그 使命으로 하는 신문제작에 있어서 속기는 그 중요한 條件要件의 하나로 重視되는 技術이다.

거듭말하거나와 新聞의 報値는 迅速하면서도 正確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迅速하다고 하더라도 正確性을 상실하면 信憑할수 없는 신문이 되고 라는 것이고 그와反對로 正確한 報值였다손치더라도 迅速性을 잃어버리면 신문이 아닌 旧聞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한가운데 新聞社에서든 거령계 하던 迅速하면서 正確한 新聞을 만들것인가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速記의 重要性이 크게 取扱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一線記者가 記事取材에 活動하는 과정에서 速記術을 지니고있는 記者는 그自身의 冊面과 精力의 消

모率로 엄청나게 減少시킬뿐 만 아니라 新聞사 자체가 그에게 價値성을 갖게 된다. 速記水準을 平均一分隔 三十字로 가정하여볼때에 文字로의 記錄能力과는 도저히 비교해 볼 생각조차 나지않는 것이다. 여기에 速記技術을 지니고있는 記者의 크다면 장점을 肯定하지 않을수 없고 형히 數字투성이 其他 內容이 복잡한 記事資料인邊우에 그러하다.

둘째로 위에말한 것은 一線記者가 外部에서 記事取材에 活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마는 編輯局內部의 처지도 마찬가지로서 外部에서 電話에 依한 記事資料가 드러왔을 경우에 文字에 依한 「메모」 정도로는 万全을 期할수 없다. 記事稿紙에 미흡한점이 있어 補充費向을 하려는올라에 通話가 끝나버리고 전화가 끝난후에 資料로서 未備된點이 發見될때에는 時가 입이 는 것이다. 市内전화도 다시한번 推却使를 돌려내기에 如處처 못한 오늘의 전화사정이 지마는 牽觸마감시간의 관계도있

여기에 봄의 構圖라는 "타
이들"을 붙여준 締朝의 意
圖와 期待에 어긋날가 두려
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거었으
나 인제나 이 速記에 대해 생

각해보고 생각하는
것을 적서 題에 代
하고저 한다

항을 쓰이는 말
이지만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해에는 이루어보자
라든가 터 좀 보름
있게 살사보자라든
가 하는 말로는 向
上을 바라는 사람
으로 있을 법한 일
이다

은랴 어느 學術
에서도 그러려니와
이 速記 學術이래 말
로 어떤가 不 完 全
한 點이 없지 않
거었다. 外國의 速
記術도 그러려니와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고 公
認되는 몇가지 式의 速記法
에도 法式 自体에서 어떻게
할수없는 欠點을 免치 못하
고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解放以後 十有年向 吾리의
言語도 完達되어 새로운 新
語乃至는 速語가 頻出되고
또한 말세 速度가 高度에 達

어감에 있어서 이
速記術도 이에 沿
해 長足の 發展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만족치 못하고 있는 點
이 許多하다. 그러
면 이와 같은 欠點
을 認識하고 있는
면서 浮淺한 短時
日內에 短時間 進
步를 가져오지 못하
는 原因이 무엇인
가 하는 것은 速記
를 아는 者는 짐작
이 갈 것이다.

十分時 三十分
후 이상의 記錄을 한
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며 나뉘
서 더하여 가가예
는 昔간의 研究와 努力이
傾注되지 않으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本高麗式에 있어서
于今 本式 學術의 改良普及를

"봄의 構圖"

新年度의 計劃

院長 金星漢

위하여 全刀하는 모임이나 團體가 없애 더욱 이세 題
 2 하고 尙후에 隨時之權은 있
 으나 現存 同門會를 考하여 歷
 記學會를 組織하여 그 是 實
 實으로 하여 言 創案者와 協談
 하여 日 進 步는 法式에 의
 完 成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
 는 希望에서 本式學會를 總
 藏하여 學術的인 面에 一 層
 向上을 期하여 望할 때 歷記
 界에 功 績이 있을 바라는 가
 음에서 學會의 組織을 이루
 어 볼가한다 이와같이 하여 實
 實의이며 歷記界에서 唯 一
 無二인 法式의 整備란이 現
 存의 似而非學術에 對抗하는
 힘에 될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有能한 歷記士
 의 輩出이다 法式에 比해
 本式歷記의 誕生이 늦기는
 하였으나 全口的으로 볼때
 歷記士의 輩出은 實的으로 나
 整的으로 本式 出身者가 全
 口 으를 이룬것은 自他가 共
 認하는 現狀이나 中央 서를
 에서의 現役歷記士의 數는
 逆坡式에 다음가는것으로 望
 으로의 期待가 크다 하겠다.

그러면 이같은 有能한 歷記
 士의 輩出이라 함은 歷記士를
 받아 주는 門路가 待期하고
 있어 俟하는 現狀은 그렇지
 도 못하다 이와같은 初創
 過度難的인 難肉을 克服하려
 면 先배 및 既存 團體인 同門
 會나 또는 어느정도 協會에
 依 存치 않으면 안되겠다 勿
 論 實刀만 있다면 不可 抗力
 도 아니지만 歷記士를 養成
 한다는 本式 自身의 責任과
 勞力이 切實히 要求되었으나
 한 사람의 힘을 미치지 않는
 事러가지 난관기 있다 지난
 날에 이루지 못한 모든것을
 成就하기 爲 心氣을 傾注할 것
 이나 勿 論로 十分 充足될 것
 인가가 急務되는바 없지않다

그리고 初內外的인 會員
 強化에 手 續하려 모임 자체이
 다 有能한 歷記士라는 것은
 當初 入門者의 十分之一은
 希 微할수 있을 정도로 成功率
 이 稀少하다 이런 局面에
 더욱더 普及하여 踏은 人材
 를 輩出하는것이 또한 喫緊
 之 事가 아분수 없다 그리고
 初外的인 實踐行爭로 什 公館
 等은 利用하여 新學術에 對한

原文을 依으로 一般에게 授한
 逐記의 諸識을 注入시키자는
 것으로 內的인面에서는 卒業
 生과 在學生은 獎勵하고 學
 生의 史期的인 南進로서 年
 구발표와 同科의 相互에 對
 한 勸을 두러히 하자는 것이
 다 總會단결로서 勸과 禮
 儀를 지키고 이와같은 例서
 터출물한 法式術法과 有能한
 選能의 人材가 나올것을 믿
 기가 篤이며 有能한 人材만이
 社會에 進出할수 있기 때문
 이다

學院은 經營하고있는 學
 生으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選能學校의 組織으로서 法式
 의 整備強화를 期하고 有能
 한 選能士의 배출을 위하여
 不斷의 努力을 아끼지 않은
 것이며 此外의인 實效를 가
 며 一般에게 逐記에 對한 諸
 識을 注入시키자는 것이 자
 금 나의 當面한 課題인 것이
 며 가 課題를 大體 以 수
 행하고 더 마음속 到히 간직
 하고 있는리이다. 불과 더부
 러 하나하나 이루어진것을
 同學들과 같이 期約한다.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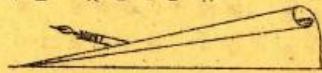
(38 페이지의 계속)

좀더 精進을 兩語 勵하고
 校會에서 逐記界에 對
 한 勸바공 禮儀는 許
 금 實效 成績 考案에 力
 的인 信託이 있기를 專
 望하며 나날이 齊進하는
 總會와 齊進速度에 對
 하여 實效의인 學術 研究
 들 各法式의 進見 交換
 및 相互 研究로서 期約하
 여 주었으면하는 希望을
 말하고 總會 兩進을 앞
 欄去 在 英進의 乃성과
 進取性있는 業務 進行을
 期約하여 마지않는다.

X X X

(60 페이지의 계속)

許多한 諸地를 歩다
 아마 나날치 逐記生活의
 困難을 겪어온 諸는 그누
 구누고 말하고있다. 여러
 가지 苦勞은마 모든 症
 諸를 새로 살리어 앞으
 로는 步할테하면 希望에
 게 進取를 입힐수있느냐
 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이만 步을 步는다.





速記에 成功하려면

備會理事 金鎖基

速記를 배우려고 學校에
들어간 사람중 前期의
目的 達해서 成功한 사람의
수보다 中途에서 失敗하고
기권한 사람의 수를 比率로
따져본다면 大體로 八割以上
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莫然한 現象이 아
니라 필자의 수년간의 速記
教授生活를 통한 경험과 또
한 他養成機關의 운영상황을
綜合해본 現下 우리나라 速記
士養成의 實情인 것이다.

이와같이 速記學習의 成功
率이 大體로 低率을 나타내
는 그原因은 于先 客觀的 條
件에서 살펴본다면 勿論 一
갓가 日淺한 우리나라 速記
配器式 自体의 多少의 결함시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이라
든지 諸般 社會環境의, 不
幸 定에서 오는 영향이라든지
學團經營에 있어 取支 不均衡에
서 오는 論說의 貧弱한 處
等 4를 열거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原因
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速記를
배우려는 學生을 自身에게
關려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大體로 速記를 배우려다
中途에서 기권하고 失敗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自
己 自身의 無能함을 생각지
않고 다만 「速記術은 어려운
것이다」 또는 「速記는 흥미
없는 것이 아니라」 라는 등 速記가
배우기 어렵지만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러한 傾向
은 速記의 普及를 위하여
眞實로 간심스러운 惡이라
아니할 수 없다 勿論 그같은
가지 2의 理由를 늘어놓을
지 모르겠으나 무슨 學問을
배우든지 무슨 學業을 하든
지 向來 果獲을 待得하지 않
는 方法을 써서는 努力만
盡責한번 效果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의 多年 商의
經驗에 依해서 다음에 지적

하는 몇가지를 逐記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提言하는 바이다

첫째로 逐記를 배우려고 하면 學校에 들어가면 如何한 난관이나 고난을 克服하고라도 꼭 이 逐記를 完成해서 職業逐記인이 되여야 되겠다. 逐記를 나의 生活方便의 거대한 武器로 삼겠다는 心的覚悟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帝國的으로 배워두자는 정도라든지 逐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관한 배워볼까 하는 정도의 忖度상태를 가지고서는 逐記를 成功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逐記에 成功하려면 強靱한 忍耐心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成功은 忍耐의 結果이지만 特히 逐記는 忍耐가 없으면 決코 所期의 目的은 達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에 入學해서 本文字를 배울 때에는 一種의 珍奇한 맛을 느낄뿐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되므로 이 정도라면 못할리가 없는데는 드시 耐性정력을 드려 공부하게 되나 本文字를 마치고 各種逐記法

暗多法構義에 드러가면 갈수록 복잡多岐해서 多少 厭倦가 나기 開始하는데다가 習得方法이라는 것이 또한 무미건조함으로 여기에서 完全히 厌倦을 느끼게 되고 逐度向上이 바람직한데로 끝 되지 않고 逐記한것은 반역해 보려고 하나 갑작스럽게도 재대로 읽혀지지 않는 데에서 처음에 품었던 意志를 完全히 상실하기 쉬운 것이 逐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구미의 난관은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強靱한 忍耐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豫愈한 成功을 바라서는 안된다. 무릇 每事에는 豫後가 있는 것이다. 充分한 用意과 確然한 根據를 만들지 않고 大運築物을 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逐記學問에 成功은 既成逐記士들도 最初는 「가」字의 練習으로부터 始依해서 多年向 苦心努力한 結果 逐記士가 된 것이다. 時向과 努力없이 어떠한 커다란 結果를 期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빛애로 연습을 할지라 하여 애한다 「術」이라는 이름이 붙은 業은 무엇이냐 理論이나 學說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타르히 速記術이란 이 손글씨로도 이루어지는 書術이 애말로 그 術이나 速記文字의 習得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速記文字 하나으로써 완전히 익숙하게 써서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速記는 도저히 速記文字가 簡便하게 組織在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사람의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決코 그 適用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速記學은 성공의 秘訣은 연습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가본만큼 철저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로 速記한 것은 반드시 번역이나 反讀을 하여야

△ △

(43 頁 - 지의 계속)

한분의 막으마한 임지가 한 函 어음을 해치고 가불리쳐는것을 自發하여 無功의 氣體에 嗚呼하여 行邪하게 갈 박거리든 골을 再演처담가름

한다 「速記를 한다」하는 것은 그저 빨리 쓰는 것으로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速記文字로써 쓰리 써놓든것을 보통文字로 번역하는데 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이나 反讀하지 못하는 速記란 無補無한 것이므로 速記란 것은 반드시 번역이나 反讀을 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번역연습도 될 수 있고. 그러서 自任가슴 速記文字가 배는대로 正當하게 規則대로 써서 읽나니 여부도 아울러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其他 速記의 姿容向趣라든지 또한 學用品에 있어서 分門이나 用紙는 如何한것을 使用해야 된다는지 연습방법 分門 등々 細々한部分에 있어서의 各學校 担当先生들이 指示가되대로 實으로 實踐해야만 速記는 功할수 있든것이다.

△ △ △

눈물하듯이 遠々한 房안 空 氣 속에서 浮물같이 있다



七
波



現代學徒 의 速記觀

崔承運

「速記는 一般의 人類의 特殊技術이다」 할수있으나 技術에 是 方法과 熟達이 따르얏는 事 勿論이다 그러므로 士기 速記를 學다는것은 그 方法을 確立하여 熟達하는 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特定한 方法은 선 驗하고 숙달하고져 하는데있어서는 相當한 근거가 있지 않거는 안될것이니 相當한 근거야말로 學徒가 지나고있는 人間環境과 生活이며 또한 速記觀일것이다 그러나 上記 名顯한바와같이 自我別的인 速記觀은 因해서 現代學徒로서의 速記觀은 規則해볼때 勿論 그 方法이 吾人에 따라 各林名色일것이나 曷은 探究한다는 學徒로서의 功勳에 故一處는 하나일것이며 또 하나가 되지않아서 是 안될것이다 換言하면 오직

論壇

하나의 技術로서의 速記보다도 速記로서의 確實한 學的인 學을 樹立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態度야말로 眞 善 美를 希求해 마지않는 學徒로서의 本分일것이며 學向한다는 所以도 이에 在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韓民族의 運命을 左右할 우리 學徒들의 速記 生活를 冷徹히 反省해 보자

實제를 胎盤으로한 速記觀을 具有한 學徒가 있지는 않나? 있다면 이는 學徒로서의 根本 精神이 欠如된 學徒이며 그의 知識이 아무리 精確 疎博한것일지도 간혹 實用의 必要는 實가되고 말것이다 勿論 그 責任의 所在을 論할건데 社會的인面이 曷다고 할수없으나 아무리 環境의 支離力이 크다해도 批判의 誠과 判斷의 能力을 具有한 學徒로서의 理知가 여기에 支配를받고 所同된대서야 詭不成能이다 天賦는 學徒로서 不良한 社會環境은 바로 健全氣가 學徒의 操盤에서 奮動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特히

現代는 科學의 發展
期를 이루고 있는 現
在의 市井期가 아닌
가 科學의 發達이라

論壇

같은 時間과 空間을 縮
박한 하나의 技術手段이 아
나나? 그러면 生活面에 있
어서 그 範圍을 이루고 있는
學徒로서의 들을 쓴다는 그
活動은 가장 平凡한 記錄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러한 學
徒로서의 生活面에 全部라
할수 있는 學徒生活의 時間을
經濟한다는 이 根本 無念이
現代의 가장 科學한 科學
이라 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니
모름지기 이 生活이해할로 速
記生活인 것이다. 그러나 教育
의 史를가진 지금의 速記
라 할지라도 現社會에 初創
期의 面을 담은 사실이다. 이
러한 速記 史의 전환기에
色面해서 社會의 貢獻을 速
記 現象을 學徒로서 適當 構
치고 創造者 現學徒가 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學徒로서의 根本 無念은 是
한 學徒들이 速記生活의 位
置에 適應하여서 自我에 對
시는 그 速記生活을 覺성하

고 人類의 貢獻하는
하나의 科學한 科學
面이 될수 있는 速記를
樹立함이 時急히 要請
되는 學徒로서의 速記 現象
것이다.



速記! 아직도 우리나라
社會各界人士들의 速記에 대한
認識은 大端히 稀薄하다. 區
區 至於는 相當한 知識層에 있는
人士들도 速記하면 그저 新
聞記者들의 取材 要領에 對한
記述로만 生覺하고 있는 體이
다. 이는 彌的으로 말하면
速記와 速算을 分別치 못한 內
容요 또한 速記를 速算로
誤信하고 있는 體에서 가지는
不鮮일 것이다. 速記라는 것은 어
대까지나 發音의 表音을
그대로 記錄하는데 그 使命
이 있는 것이지 廣士의 發音
內容의 重要部分만을 記述
하는 體 그 使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速記는 速

는 逐記辨만이 唯一한 그 解決能力은 가진다고 하였다

論說

그러하여 錄音機는 特殊한 境遇에는 逐記辨을 不要하지만 敎會세서의 大部의 경우에는 逐記의 副用的인 機械로 引用되어 逐記의 結果를 轉換하는 位置에 처하고있음은 敎會의 現實態로 보아 尹然한 客觀的事實인을 否認할수 없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錄音機至上主義者들은 그主張과 固執을 계속하려 할것인가? 万一 그러한 主張과 思考方式를 그대로 模倣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民主主義의 進行者라고 말하는 감히 規定지으려한다. 왜그러나하면 民主政治라든것은 國民이 가진 政權이며 國民에의하여 하는 政權이기때문에 모든 國家機關은 國民으로부터 公選된자에 의하여 구성되며 그構成員들은 모두가 國民의 受任者이기때문에 그機關의 일은 即 國民의 일이며 그구성원은 即 國民의 代弁사이

나 그機關의 일과 그 構成員들이 全權을 國民에게 알리지않고 누구에게

알린단 말인가? 어떻한 特定세계만이 아니고 全國民에게 報通할수있어서 時空的制限을 不受하는 錄音機로서 어찌 만족을 느낄수 있으며 어찌 이것만은 至上이라고 斷言할수 있을것인가? 万一 그렇다면 一차 報通해서 우리 社會의 耳目인 新聞報道도 錄音機로써 代置할수있겠다는 論說이 이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왜 科學文明이 尖端에 到達한 美口과같은 先進口家에서 言論의 死活을 부끄러운세 新聞報道에 依存하고있는가? 어디까지나 錄音機는 錄音機이기때문에 그의 機能의 범위가 限定되어있어서 言論全分野에 應答하는것이아니오 局部的인것인고로 錄音機는 그의 役割만을 담당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데도 不拘하고 그것이 至上이라면 극단적으로 評해서 自由言論의 범위를 意識적으로 縮小시키

는 結果가 되니 이 어
찌 民主主義進行을 가
아니겠는가? 필자는 이
러한 視點에서 錄音機
至上主義를 林해서 民主主
義의 實踐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視點의 角度를
달리해서 推斷해보건대 速記
無用論은 主眼하는 錄音機至
上主義의 出現은 아마도
速記能力이 不足한 速記士에
의하여 作成된 速記錄이 記
憶錄보다도 못한것을 不備의
여건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懸料되어 도리어 實용로서는
錄音機至上主義를 에게 가는
阿扁心을 금치 못하였다

이와같은 論點로서 速記와
錄音과의 長短長을 技術的
面에서 再檢討하여 各其 相
互長의 符合으므로 가질 수
있는 長短長을 取하고 또
한 各其 欠缺의 相互補正로
써 補正할 수 있는 長短長을 取
하여 速記와 錄音을 補正하
는 데서 速記는 速記의 使命
을 錄音機는 錄音機의 使命
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 △ △

論壇

現代人外連記

의 緊要性 嚴 景濤

現代 Newyork 재판상의 速
記學士「아라온」氏가 있다는 것
과 別리는 古代 Rome 全盛期
(B.C 約 80年) 即 지금으로부터
二千餘年前 當時의 兩名
의 雄辯家로 널리 알려져
있던 Marcus Tullius Cicero
가 冤罪로 死刑을 受함 받았
다가 囚徒-變로 其罰을 免
하고 口外 各地를 遊說하
며 演說과 著述에 從事하던
時 當時 Cicero 의 弟子 Tiro
가 Rome 學로서 言語의 頭
目字를 擔記함으로써 其法을
表示하는 速記法을 考察하여
서 Cicero 의 演說을 寫기
하여 公表하였다고 하니 이것
이 世界速記의 最初이며 Tiro
氏는 實로 速記의 元祖라고
한다. 이와같이 오랜 史
를 통하여 오만에 이른 速
記術은 그 發展이 비록 두렸
한 學的體系를 우리한테 보
이 세져 주지는 못하였을

論壇

지라도 長久한 史實을
 통하여 그 必然性과 實
 用性은 적어도 言語와
 文字를 갖인 人類社會에
 서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숨겨진 眞實과 같이 생각하
 여 오던 것이다
 文字에 起源이 言語의 結晶
 을 보충하는 長時間 保存의
 必要性에서 出發된 것이라고
 본다 文字는 言語의 延長
 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文字의 價值는 그 實效를 即
 刻적으로 人類社會에 주었으
 며 또한 人類文化 全般에
 관한 文字의 意味는 어느
 部分에서도 적다고 말할 수 없
 는 것이다. 言語를 時間적으로
 延長하고 空間적으로 廣大하
 게 伸張하였으며 그것이 남긴
 위대한 보람은 言語의 結實
 과 같은 史實인 것이다. 時,
 空, 세 制限을 全無히 벗어
 나지는 못하지만 文字를 통
 하여 先代의 事實과 또한
 他人의 意思를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言語와 文字는 둘이
 다 各人의 意思를 表示하려
 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方法이 다를뿐이며

그들은 相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면
 서 言語도 文字를 통하
 여 文字는 文字를 통하
 여 自己意思를 表示하는데
 그 다른 곳이 있는 것이다. 그
 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文
 字에 屬하는 速記에 關係한
 것이다. 速記는 意思表示를
 하는 입과 手에 一致를 目
 擊한 速捷한 記錄方法이라고
 본다

이런 迅速한 記錄法은
 왜 要求되었나? 그것은 普
 通文字의 精成의 多樣性과
 또한 복합성으로 因한 言語
 와의 距離에서 일것으로 본
 다. Cicero의 弟子인 Tiro
 가 그 言語의 頭尾字를 써서
 후에 그의 漢說文을 著述한
 것은 그런 理由를 說明하는
 것이 되었고 現代에도 數多
 한 速記方法이 생겨서 쓰여
 지고 있는 것도 言語의 內容
 을 사실 그대로 좀더 生動하
 게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他人
 에게도 들림 없는 사실 그대로
 를 전하며 오면 史實을 통
 하여도 변할수 없는 사실은

보여주려는데 있을 것이
다. 특별히 글씨에 와
서만 篆記의 긴요성이
더하다고 주장하기는

論 壇

어려운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것은 언제나 긴요하게 여겼
던 것으로 본 것이다.

現代社會 篆記의 긴요성이
라는 제목하에서 現代에 살
고 있는 古人과 篆記와의 關係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고 같은 것이지만 古人
이 自己가 살고 있는 社會形
態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
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現
代는 古人의 意圖를 自由로
表現할 수 있는 때이며 또한
自己意思를 充分히 表現할 수
있기 위한 知的 基礎를 막기에
누구나 다 문부신 노력을 과
고 있는 때라고 본다. 이런 노
력의 第一重要한 點은 書
體와 文字인 것이다.

그러면 今일까지 우리 人
類社會에서 日常使用하고 있는
文字는 完全히 못하기 때문에
그 制作者가 쓰이는 篆記文字
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

문에 대해서는 古用體
가 다른 점에서 서로 다
른 중요성을 갖었다고
할 수 있다. 勿論 完全한

文字라면 關係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文字를 單으로
보는 理由는 人間의 기억력
에 制限性에서 인 만큼 他의 사
語를 通하여 發表하는 意
圖를 文字를 써서 오래도록
保存하려는 기억력의 不足을
性을 彌充하려는 것이다. 이
런 要求에서 起源한 記數術
은 日常用 文字에서 바랄 수
없는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이 篆記가 가진 唯一의
功果인 것이다. 所懸念바도 있
거니와 音韻과 文字의 一致
를 그의 最高目標로 삼은 것
이 篆記라고 본다. 이런 意味에
서 現代社會 篆記와는 關係
가 없으며 그것이 적으나마
하나의 技能을 요하는 技術
인 만큼 누구나 쉽게 使用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總히
는 그 使用處가 政治的인 데
限한 것으로 여기지만 其
實 그 緊要性은 最近이 처하
는 여러가지 部門에서 實際
的인 緊要性을 더욱 느끼는 것이다.

九
丙

總會를 앞두고 論壇

宋炳午

어감이 많은 人間社會이지
 만 自然의 때(時)만은 可
 刻의 어감도 없이 默어온다.
 總記人들이 協會를 이룩한지
 도 어안 3주째 접어들어
 오는 四月에는 不可不 總會
 를 召集하게 될것인데 其向
 向人들은 協會라는 輪軸을
 捲고 果實 무엇을 採收하겠
 으며 무엇을 進行하고있는 것
 일가? 모든것은 總會후上에
 서 實績이 가려질 만이거니
 와 總記를 배치한 한 사람으
 로서 尤지않 協會의 存在性
 與否에 對한 疑懼가 漸次
 濃厚해 가는것은 非但 某者만
 의 觀感도 아닌것같아 吾等
 의 精誠을 貶할가 한다

協會 憲章中 = 條에는 「本會
 는 我國의 現存한 諸總記法
 를 穆羅한 象紐體이다」라
 고 明切히 規定이 되어있다
 그러면 果實 現在 學術協會
 는 이條項을 完全히 履行하

고있는가? 不然이면
 그렇한 努力이라도 使
 注하고 있는것인가?

勿論 或者는 現在
 協會의 構成體인 四法式(高
 麗 總記 什法 中央)以外에
 法式으로서의 形式은 尙
 完全 適法이 어디도 있느냐
 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自家檢査이 아는가?
 왜 地方은 始檢하고 서울에
 만도 續口式이나 兼務式이나
 하는 方式이 現存하고있는것
 이 사실이 아닌가? 勿論 그
 물의 實用性如何는 次置하고

그렇다면 그들을 召喚할
 만 諸物은 있었는가? 且
 건대 總記 憲章部에서 專務
 式總記士 二名을 指定해다가
 會員에 加入시키기위한 「테스
 트」를 行한 結果 所獲이
 얼도 적지않아서 總記 專務
 式은 代表하는 兩 사람이 切
 하고 滿했다고 한다 그結果
 는 그렇다고하고 이러한 輕便
 은 그것이 公式이었던 非公
 式이었건 마땅히 全會員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解
 함이나 이런 消息이 會誌上

에서나 또는 其他方法
으로라도 自費들에게
알려준바가 故으니 糖
務 文化 實益 各節

糖 壇

任買徒의 머리가 어떻게 생
겨 먹었는지 모를 일이다 糖稅
輸口式으로 말하면 糖去에
관두빈 理事陣에서 交涉를
하다가 中止되었다고 하며 兩
次의 糖稅特別市議會 議記士
採用試驗에서 그들은 合格團
內에 進接도 못하여 加稅하
고 그들의 無實力과 似而非 糖稅
라는 것을 爲로해 버렸으니가
云 糖稅 金值主가 없다고 消
極的 態度에 크치고 있는 것같
다 그러나 部下 各新原航上
에 糖日 代보되어 나오는 그
들의 實益으로 말미암아 적
지 않은 糖稅들이 그들의 實
益한 時間과 精力을 力을 浪
費하고 있는 現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判斷力이 없고
虛榮과 証期 狂症에 걸린 달
금한 會協에 넘어가 欠用 加
稅도 設은 糖稅證이니 그들은
에게는 可望도 設은 糖稅 糖
稅이니 糖稅도 設은 似而非 糖
稅의 糖稅인 糖稅者 糖稅
云々에 其目이 糖稅되어 스

스로 破 破 破로 이끄는
結果라 하여 會不 存 於 糖
으로 放任해 두고 말 것
인가?

그러면 結果的으로 「本會의
目的은 我口의 真正한 糖稅
文化를 正當的으로 向上 糖稅
시킴에 있다」는 糖稅 實益을
친신적들이 차버리는 行위가
되는 것이 사단가? 但 此의
糖稅이나 糖稅이라도 責任이
무겁거든 現 公 糖稅인 糖稅
에 있어 어대? 더구나 糖稅
한 것은 糖稅 糖稅式은 中央
式이라는 名稱을 採用하여
宣稱하고 있는 糖稅에 있다
그들의 糖稅目的은 糖稅 糖
稅의 糖稅서치 糖稅 糖稅
糖稅式이라는 糖稅를 糖稅하
려함이오 糖稅는 現在 糖稅
의 糖稅式인 中央式과 糖稅
無 糖稅에서오는 糖稅인 糖稅
果를 一般 糖稅들에게서 얻으
려는 一石=萬의 糖稅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本會의 糖稅
式 糖稅은 都 本會 糖稅 부
稅를 하고 있는 것일까? 糖稅
糖稅를 빌려주고 糖稅이라도
받고 糖稅를 均分하는 것이
아닐진데 또한 中央式과 糖

九
外

論壇

會費이 될 것은 누구며
 學會費은 언제까지나
 突力이 있던 없건간에
 學會費으로만 것은 라는
 말인가? 學會費에 入會하면
 三四月이 經過되면 會費이 될
 資格이 있다는데 三四月은
 始末하고 六七月이 되어도
 正會費으로서의 資格을 具備
 申請하라는 消息도 없으니
 대체 심사하는 處는 何處
 일까? 우리 學會費들은 所定
 의 課率을 納了하고 一定한
 期間 登錄費을 納다 보면 何
 處를 가리키 突力 「레스트」도
 한번 考보고 싶어진다 그것은
 우리 爲學式 本會만이 아니라
 佛會에서 何마다 納了하는
 四法式의 新進生을 總應하여
 그런 會費을 納한 後로
 면하는 思想이 如何한데 우리
 가 배우기 始末을 考부러 得
 려오던 討論은 어느 林叢에
 서 夕草을 食는지 何지음은
 消息조차 聞々하다.

이렇게 하고보시 佛會에
 서 何일이 하나도 없는것
 같다 그러나 佛會에 二次
 에 何한 서울市 議會 選配士
 採用에 있어서 韓口式出身으

로 인정되었었다는 說
 을 一蹴하고 正當하게
 試驗制로 이끌어 佛會
 의 威信과 突力을 充
 分히 발휘한 것은 佛會의
 唯一한 業績이 아닌가
 會費나 考수하는데 何의 功
 能은 總新部 몇달만인지 一
 月만인지 「選配文化」 課를 設
 立한지 多少고 自勵하려는
 文化部 考수는 何等한 功
 能에서 何의 結果에 達한
 것인지 事實 考數를 考하지 않는
 在 佛會에 何한 總會의 總應 考
 는 何한 것이 何어나 올 것인
 가 그들에게 何과한 職分은
 何責任하게 履行하라는 것이
 아닌가에 佛會에 何와서
 何라고 自勵할 것인가 何보다
 何心한 일이다 이 佛會
 에는 次期 總會에서 各 考數도
 아닌 各 考數를 統合하여 考
 사와 考數를 總務에 吸收하
 고 研究를 文化課에 合쳐서
 何결하게 考數任한 考數만을
 何어 考지 않는 것이 何明할 것이
 다 끝으로 全會費이 (23期-何에)
 何

十 四

速記士의告白



— 나의 速記士 生活에서 生覺되는 것 —

尹 壽 鶴

編輯者가 指定한 題目 題
 目은 보면 速記士 生活에
 서 나는 어지간히 재미를
 품 보았어야 할 일이고 큰
 거 아닌 일과 과로 奮鬥한 이
 多少 經歷되어야만 예기를
 하는 사람이 나 듣는 사람이
 다같이 興味를 느낄 터인데
 그 형지를 못하니 저쪽의 示
 諭하고 答々할 수 밖에 없다
 회고하면 내가 速記士 生活
 을 始作한지도 이력 저력
 概々 記述하고 몇 10년이 더
 되는 것 같다. 차도 우리나라
 社會相이 學校를 다닐 만치
 다 나로도 就職이 잘 되지가
 않거니와 任職을 2년 3년
 은 관이 되만치 나 速記士
 士가 考得한다고 마음속으로
 望望한 후에 正當 職業 速記士
 가 되기까지에는 여러가지로
 나는 시련과 고민을 겪지 않
 을 수 없었고 막상 速記를 定
 한 課程대로 다 배우고 나

서도 오라는 곳이 없었기 때
 문에 空虛히 時間을 費한 카
 지 않았나 보아 莫當하지 않은
 수 없지다. 그래서 口會에서
 兎當도 해보고 七·八月을
 연습이 암하고 하다가 正式으
 로 兎當을 받았지만 이런
 學生은 非難 나라에 한 사람
 의 學生이 아브것이고 우리
 의 先輩들이나 宿望들도 다
 같이 休職하고 격지않으면
 안될 고생이며 우리나라 選
 界에 入은 들어놓은 자 全
 體가 南極에 氷만일 前途의
 望인 줄로 안다. 그러나 만치
 지금에도 서열한 사람이 選
 界에 入하여 高 級의 生 考한
 나머지 速記를 몇 10년이 나
 배우면 한 사람의 速記士가
 될 수 있는나고 듣는 다른지 하
 면 승그머니 화가 치미는 것
 을 참을 수가 없다. 나라는
 人 材가 尠不 充足하기 때문에
 缺처럼 그렇게 재치있지 短

新向에 逐記를 獲得하지 못했
 은지는 몰라도 近=극동안이
 나 극동어리다가 名한 이 逐
 記士가 되고 보니 眞의 職
 常인 技術은 그렇게 작안져
 려 조금하다가 배워지는 것
 으로 認識하는 것이 內心 不
 決한 때뿐이다 무슨 式 무슨
 式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마
 는 지금 우리口內에는 實用
 性이 뛰어난 似而非逐記術이
 記逐을 하고 新向 念심에도
 보면 榜常期 向은 大位月로
 兼提를 하고서는 「逐記士 兼提
 兼提」나 무슨 「兼職 兼提」이
 나 「逐記 兼提 兼提」이니 써
 서 더욱 더욱 逐記術의 地
 位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驚탄 보기에 딱한 노릇이라
 고 생각한다 어느모로 보나
 兼提하기 딱이 없는 나리기도
 하지마는 그렇게 近=伯극동
 안이나 歐島와 燕情(?)은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苦
 勞케나 하고서도 職場으로
 들어가 보니 自己 實力세치하
 여 새삼스러히 不安全感을 가
 지지 않을수 없었고 荒蕪의
 觀處와 眞實을 지지않고 너는
 到底의 眞을 해나갈수가 없

었다 配定인 自己 時向에 主
 務와 逐記를 하고서는 逐記
 術을 하고 兼提를 作成하게
 되는데 兼提의 程度가 불
 러서 漏落이 되거나 誤聽된
 것이 많은경우에는 그 부끄럼
 고 창피한이란 시류 形을 알
 수가 없었다 多幸히 선배들
 에게도 그러한 과거가 있었
 으니 만치 모든것을 理解하고
 들보아 주었기 때문에 얼마간
 귀안은 되지마는 이런것이
 다른 職常에서는 생각할수도
 없으리만치 그 度가 深刻한것
 이다 지금이라도 해서 어디
 가 지나 夾刀있던 一家를 이
 루었다고 自負할 心地가 사
 니나 만치 이런해기가 모도
 주 제넘고 분수와 度세 지나
 친 해기가 가볼수 없지마는
 이 제는 그것도 안성이 되었
 은지 正작 기명한 多數를
 하기 兩에는 逐記를 兼에 當
 하여 同과같이 서역々々하는
 恐怖症과 不安亂이 적어진것
 든 보면 이것이 나의 實力
 의 補充이 아닌가(?)하고 引
 안은 느끼는 바이다 康系
 逐記라고하는 것 自傳가 完全
 한것이라고 斷定할수가 없고

十
 外

弊習의 存함이 難해하지가
 淺어서 屢속으로 吾를 吾를
 지키라는 것마저 可能이 아닌
 우리의 懸念으로서 「갓취」하
 가는 不可能한 것이고 우리의
 知識이 未及할 程度라든가
 屢必한 學術用語 黨內術語에
 는 어느 程度 能悉한 匪記士
 일지라도 득손을, 屢씩 屢지
 屢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의 고된 것이다. 나에게는 이러
 한 劣點이 있다 어느 醫
 藥雜誌社에 屢 屢係를 屢서
 屢 屢한 屢藏으로나마 그 屢
 屢 屢色이 없이 屢藏을 屢
 屢을 屢는데 屢번 屢數로 屢
 屢이 屢나 屢屢 屢을 屢는
 屢사 屢고 그 屢부러 屢屢는
 屢의 屢記士를 屢의 屢는. 屢
 屢고 屢기 屢를 屢는 屢이 屢다
 屢런 屢는 屢나라는 屢(屢記士
 의 屢數 屢가 屢보다도 屢記
 屢를 屢는 屢全體가 屢번 屢는
 屢보지 屢으면 屢屢 屢杯라고
 屢覺하든 것이다. 그 屢다 屢해서
 屢리 屢記를 屢業으로 屢는
 屢사람들이 屢常 屢와 屢은 屢고
 屢屢를 屢치고 屢數 屢를 屢
 屢리 屢다고 屢가 屢하는 屢
 屢나 屢리의 屢業을 屢 屢 屢

은 雜業가 되고 屢것이고
 屢로는 屢은 屢業에서는 屢
 屢을 수 있는 屢業과 屢業에 屢
 屢한 屢간이 屢다는 屢를 屢
 屢할 수 屢다. 屢業으로 屢하
 屢라도 屢業이나 屢業에 屢
 屢의 屢業가 屢字化 되서 屢
 屢러 屢者들의 屢미 屢게 屢
 屢되는 屢우라든지 屢는 屢政
 屢나 屢社會體의 屢會에
 屢가서 屢屢한 屢上에 屢리
 屢고 屢번 屢의 屢를
 屢屢한 屢는지 屢는 屢는 屢
 屢리 屢도 屢은 屢業에서는 屢
 屢을 수 없는 屢미로 屢業 屢
 屢라고 屢가 屢다.



燈 盞 燭 빛 애 의

柳 智 永

오늘날 科學文明의 屢業에
 서 그 屢力을 屢業하며
 屢生油에 크나큰 屢의 屢
 屢를 屢고 屢는 屢의 屢
 屢 屢인 屢의 屢 屢
 屢 屢 屢의 屢 屢

정출본원것이냐

回覽컨데 빈곳과 빈기도 가
가온 허깨시년의 感懷의 幻
정은 一頁에 피돌아서서--

九十八名의 忠誠이 가 동기
뜻기 守節대며 所期의 完成
를 追求하며 스타-트. 자
는 새로운 運命의 前途 研究
로 부터의 羅網의 波紋의
서무나 큰 現狀을 다시금 노
키게 된다 亦即 이것이 人生
의 常態일진데 恨하는것조차
懣然할 마음일것이겠지한--

大部수의 心算이 다 받고
있는 또한 辨論수도 混淆하
지만 나에게는 그것조차 許
容되지못했는지? (차라리
덜한것 보니까 比天. 比天할
것없이 天然的으로 마땅히
말을만한 靈眼조차 前연의으
로 지니고, 러어나지 못한 나
였지만) 往想한 그애말로 火
窟에서 온 고물랑 잔죽이 북
그쪽의 글씨 (서포와 리씨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는 못했
지만) 楨林인 遠處文字를 배
운다는 喜悅로서 귀 한에는
하루의 並 四, 五, 十, 百을 往後
하면서 蚊聲에는 잔뜩 蒸氣
이 된 땀가죽을 응적잡고 이

를잡며 아우성치며 울고 웃
고 짜저기는 싸움의 現狀하
고 소란한 鼎定된 鎗의 廠
權각 陣上에서 泅여난듯이
輪軸이 轉動 美術의 本
말고 광사아를 轉動 3, 4
막지플 산마우 轟탄 할것없
이 동기 동기 일어나온듯한
자그마한 나건 精潔 運轉에
서 저역할 것은 하얀 運轉
가 한바퀴에 나뉘기며 온
마음을 자주의 咬을때 어떤
자 내마음은 이능하고 조듯
한 突擊을 노적근 하였다.
삼시白 獨의 飢餓를 免한
獨한 房室에 가물거리는
정물들을 唯一의 百知知와
같이 多情이 同聲하여 마음
의 獨處를 이루어주는 순가
로운 室與 夢들의 冊들이
꽃여화는 冊이에서 꽃고
우물고 동클고 북 막고 於
馬 變호를 轉動되--

은것것을 리게 줄 줄이고
陳述시켰던 冬將軍도 산들거
리며 葉々한 봄 春風의 輪
轉에는 健월 나기없이 고만
속으러져 팔라 사들여진 古
木세도 음이되고 森羅乃像이
蘇生하는 봄의 꽃동산이 되

十一
丙



現 職 에 서 의

김



洪 乙 姬

逐記士라는 疑難의 位置에
 自身을 結付 시켜 놓고 文字도
 아닌 曲解을 그리서 이것
 이 어리한 辭句를 表現하는
 妙筆의 獨步 / 即 逐記文字
 라 해 놓고 혼자서 可笑을
 치며 南無日을 앞둔 南無日
 의 나의 心狀을 描寫해 보며
 오름의 現狀에서의 心狀과
 比較해 볼 때 逐記에 對한 好意
 心은 入學 前日의 것이 오름
 前日生活에서의 喜悅를 描寫
 한다 하였다

約一 0 年 前에 걸치 獲得한
 逐記士라는 位置에서 突務에
 임할 때 修練期에 希求하였는
 所望에 不足에서인지? 그렇지
 않은면 내가 笑고 싶어하는
 環境에서의 在場을 느낄 수가
 없다면 從에서인지? 如何든 現
 職者로서의 滋味가 어찌 내
 自身을 考고도 나는 別로
 確然한 自答을 할 何의 充分
 한 資料가 없다 아마도 이것
 이 내가 自答할 能기나

또는 어디인가 補強을 받아
 水갈 渴이 있어서 이랬지 하고
 自慰로써 나의 是거는 幻滅
 을 물리치기 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是거 補強은 내가
 南無한 時向을 笑고 버서 오는
 空想으로 풀리고 그러면 여
 자마리 突務를 通해서 연은
 빛가지 滿面로운 이키기와
 心극히 느긋바를 記述하
 며 現職生活上的 한 點을 相
 介하려 한다.

就職初日부터 一日約一 時向
 未의 逐記時向을 가짐에 第
 一 手 逐記는 것은 以前에 「反文
 」 할 것이었다 修練期에 간
 번도 一 時向 逐記文을 反文해
 본 練習態度를 取해 보지 못했
 던 나로서는 자국이 「反文」
 이 걱정되었다 더욱이 기세
 遙然되지 않은 孤兒를 통하여
 나오는 叙景의 筆을 淸
 취하기는 정말 힘들었으며
 때로는 방향을 誤쳐 笑했다
 그러나 間使 前日에서의 生

士
外

情을 오래가진 充勤 逐記士와
 同勤했으니 難辭와 疑問은
 도움은 받겠다는 慈悲心에서
 때로는 自身の 不足은 愈々
 하지않기도 하였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느끼는 自身の 不
 足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여
 기에서 안기울 주저가지 않
 거니와 或 女子의 筆跡이라
 해서 悲男 賦類의 嘲笑의
 対象이나 되지않은가 하는데서
 原又提出하고하는데 空露하
 나홀로 서슴거리기도하였다
 달만 아니라 試式이 다른 人
 賦類들도 많은데 或 誤解이나
 있지않을까 하는 혼자서의 지
 나친 想像도 몇번이고 테두
 리하여 冥冥 賦類生活 初 序의
 姿態를 如實히 表現하였었다
 는것이 現存에 있어서 나의
 自口 評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은 내가 근무하는 그 학
 制에 가지는 筆線한 마음의
 한가닥 線이라는것이 나의 큰
 悅이라고 할만하다 재래하면
 學園生活를 中斷치 않은 年
 만 되게된 나의 지난날의 事
 情이었다는것이 오를 내마음
 한구석을 踴躍하고있는 고민
 의 하나인데 그짓은 언제나

내가 餘裕의 時間을 갖았때
 먼 뉘처나와 마음은 의음치
 는 하나의 驚物이기는하나
 勤執에 臨하는 그 時刻에는
 이와같은 煩雜한 筆線이 사
 라지고 오직 純리는 單線를
 籠取하여 記錄하였다는데 余
 意이 있다는것이 이것이나
 의 「筆線的인 心狀」이다 어
 래가지나 筆線的인 心狀을
 가져는데서 雜念이 退却되니
 이백은 마치 各物事物에 마
 음을 응축이지 않고 오직
 어머니 품안만이 自己의 安
 息處라고 感覺하는 天眞爛漫
 한 泥鰌의 心狀와도 같다는
 느낌에서 나도오른 사기에
 그 凝縮한 그 場面의 그 門券
 을 뒤세라도 다시한번 기꺼
 워한다 그러나 誤解의 辨
 論의 過程에 따라 誤解라도 같
 이 움직이는 變遷을 이레가
 지나 「誤解性」은 되어야한다
 는 느낌을 몇번이고 갖었다
 내 비록 停騎를 避해서 一
 은 經驗이 아니고 다만 學
 問은 하나의 理論的 근거
 에서인데 예를 들어서보면
 口술에서도 볼수있는 譯例이
 거니와 市談會에서만 본다하

(10)

드라도 市談眞은의 齊言速良
 은 談會構成 初期에 있어서의
 齊言速度와 現手에 있어서의
 齊言速度는 大差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概實으로 觀心의
 余地있는 範圍이다 勿論 時
 日의 經過와 함께 無制限
 할러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齊
 言의 速度가 빨라 지는 것은
 確實하다 그러면 速記의 役
 命은 어디까지나 齊言의 表
 音을 記號하여야 할 것이니
 速記士의 選擇力도 無制限은
 不可能하다 하겠으나 時日의
 흐름을 따라 變遷을 經하여 가
 는 表音術에 適應되는 速度
 의 選擇力은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가진 자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
- 結婚前에는 눈을 最大限으로 크게 뜨고 結婚 후에는 눈을 最大限으로 작게 뜨라
- 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自己를 普通人類以下 下等動物에 處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自己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다
 - 할머스 -

十一

同 門 會 消 息

四二八九・十一

同門會員 金承烈 水原市談會
 速記士로 赴任

四二九〇・一・十八

同門會員 (五期出身) 柳智永
 洪乙雄 兩人 H邑市談會速記
 士로 入會

四二九〇・一・十一

同門會 主催 崔致會 副催



隨筆

“해토”



Y 注

涸水驚驚이면 大同江이 들
 린다는데 -- 밤은 맑히이 그
 러나 힘차게 막아오는것같다
 지루하게 가쳐있던 겨울동안
 너무도 소극라 들었던 팔다리
 를 떠벌까 하고 곧거리로 나
 왔다 강수 받아 붙었던 땅흔
 이 세법 마거온 현상에 특
 이서 가득이나 말아아닌 길
 이 사곳 개울바닥이다 左側
 으로 험난한 向德高女 뒷
 결을 가고 右側저편에 과묵
 자같은 집들이 오쁜거리는
 駱山을 바라보며 西쪽에 즐
 직한 大門들이 늘어선 四十度
 비탈길을 넘어스자 한회트
 이는 曠野로 갈충한구석이
 무더진 寒穴門이 나라샨다.
 越은블때로 靛色한 建物이지
 만 저멀리 南山을 靛票으로
 하고 서있는 모습이 그대로 서
 단가 威聲을 가주고 있는것
 같이 생활이 들었다 나든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 고개
를 내려갔다.

겨울동안 눈이 나리고 나면
 내다뿌린 氷(氷)가 쌓이고 쌓
 여서 발목 두께보다 두꺼워
 진것이 解氷期를 맞이해서
 녹아가고 있었다 그 녹은것이
 보기에 것처럼만것은 들쭉로
 하고 발흔 밑기가 무릎까지
 들으 깨졌다 그것도 속속들
 이 녹은것이 아니여서 빠
 라고나면 의리치 속은 의그
 러웠다 나는 행어나 옷자락
 에 온수가 김을 먹고 바지
 가 경이름 간득 움켜잡고 한
 걸음 두걸음 조심스럽게 내
 려갔다 그러나 갈수록 길은
 더 험했고 그 험진 곳에는 어
 쯤도 녹지않서 더욱 미끄러
 워다 기다렸히 고개를 내려
 스니 동허리에는 말이 속스
 리 배웠고 구두는 흙투성이
 가 되었다 모처럼의 外出이
 그 애판도 無效果가 되는가
 보다

줄어져가는 초가집 녹이슨
 은 생철집사이로 뚫린 골목
 길에 들어스니 길은 한층더
 말이 아니었다 좁은 길 북
 란을 헤치고 下水道를 파올

저거기까 끝났음에 수복이
 말며 어디로 가야할지 漢然
 하였다. 그러도 기리외라고
 저리 풀다 나중에는 뽕밭길
 을 하다보니 어느새 손켜워
 었던 바지가 령이도 흘러 버
 렸고 코트지극까지 흙뽕에
 뒹었다. 이런러면 차라리 밭
 어 풀은대로 녹지나갈것이면
 날것을 하고 주꾸도 부러보
 겠으나 赤蓬 오고야 말것은
 그는것이고 막을수도 없거니
 나 막아서도 안되겠지. 하는
 생각에 흘었다. 또 이렇게
 진행인것도 조금만 지나면
 가쁜방이 될것이니까

서젓은 처음세는 흙이 곧
 흙새라 하던 마음도 사라지
 고 어떻게 하면 흙을 꼭끼
 혼환까 하고 애를 쓰게되었
 으니 이런 진행길에 반성이
 되었나보다 오만상을 정그렸
 던것도 잊어 버리고 지척거리
 어 끝목길들 걸어 막 보충
 시편 돌아스려는때였다. 「이
 품아 말리 화내지 못해 /」 하
 는 목숨이 날러왔다. 겸 학논
 다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넘어진 帶服을 입은 十. 三
 수가 령 되어 보이는 少복과

그의 고마친구인듯한 赤蓬
 그또래의 얼굴에 은동홍꽃인
 少복이 즐장이 되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옆에서
 뚫뚫하고 었는것은 가곡광바
 세 高杖-부 뺏지를 단 紅
 纓의 少복이었다. 그는 발발
 을 손가락질해가며 빨리 파
 내라고 알려대는 것이었다.
 나쁜 무슨 죽은 귀라도 물어
 놓았는가 하고 바라보았다. 옆
 에 전망에 비해서 좀 마른
 양같이 보이는것이 었으나
 깨끗한 흙이 덮인것은 조금
 前에 파낸 흙막이로 었었다.
 별로 흥미도없이 다시 경릉
 을 옮기려 하던데 울것 내
 얼굴을 것론질 하던 학생이
 「이름이 가늠이나 잘어서
 건기가 망한데 이렇게 흙길
 을 분쳐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음-」 서늘이 두르며
 고래스스 지르는 소리에 少
 복들은 멍그린. 얼굴로 가만
 히 었으나 학생의 말에 服
 從하려는 빛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그저 학생한테서 빠
 러나갈 중려만 하고있는 눈
 지였다.

나쁜 어떻게 하면 (11월-12월)
 세

十二外

“알고도 모를 일”

◇ 領都어를 / 하면 離韓부터 이젠지 스마-트하고
 文化의 常識을 象徵하는것같기도 한데 ---
 질독질은 들어스런 辨은 되어 놓는데, 소름이 거친다
 어느것이 오즈론이고 어느것이 땅이고 어느것이 ○
 덩어리인지 分擘은 할수가 있어 애지근세 겨울에야
 그래도 辨氣에 걸린 코들이 酷烈할테지만 ---

◇ 文化스런데 하고 二十四時中 = 二十四時은 茶房이
 다 크림이다 빠-다 푸는 靚髮會다 靚髮會다 뭐
 靚髮會다 靚髮會-리다 하고 올라나더야 靚髮들이
 풀리는 靚髮이고보니 靚髮茶館 하나가 고기밥이 되
 는것은 靚髮이 靚髮이 靚髮이지만 나들이 들어만
 가는 거리거리의 靚髮靚髮인 靚髮靚髮이 눈에 안떠올
 람도 없겠는데 --- 그래도 별에나 뽕잠고 노란
 털을 한것은 마음의 울라리라도 좀후라치 하러는것
 인지 ---

◇ 三食之樂에 습득하기를 입고 冷麵을 먹는것도
 세뭇이거늘 피고싶은 담배풀애 누가 뭐라한들 못피

프로필 話題의人物

李桂範氏
 或 南 北 南 出 身 身 學 校 卒 業
 日 本 放 大 學 政 治 學 部
 政 治 學 部 政 治 學 科 卒 業
 政 治 學 部 政 治 學 科 卒 業

것서른의 總角이라던 高等
 學生의 輩也도 靚髮같은 요
 지음 누구나 머리가 없으로

돌아가겠지만 靚髮은 가슴에
 손들대고 말해도 靚髮상
 다
 靚髮말한키세 은근히 靚髮
 오뎀배 靚髮 靚髮 靚髮 머리
 靚髮의인 靚髮 靚髮이 속인
 고 靚髮靚髮이 어딘지 모른
 게 靚髮한듯 느껴지는것은



“速記하는學友를 보고”

姜 範 蒼

學友는 速記에 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얼마전까
 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速記
 가 무엇이며 무슨 必要가 있
 는가에 對하여 感覺조차 한
 적이 없다. 때 이따금 큰
 솟음대에 가돌것 같으면 鉛筆
 을 가지고 보즈런히 동이우
 세 熱心히 무웠인가를 그리
 고 있는것은 가끔된다. 그러
 도 無關心했다. 도시 속기라
 는것이 必要없던것이 아님까
 하고 많이 失望했다. 오늘날
 과 같이 鐵血제가 舞臺한
 時代에 아직도 速記로서 苦心(?) 한 筆刀은 하는것은
 아마 奇蹟性을 表示하는 것
 세 不遜하지 않을가라고 生
 覺도 해보았다. 더욱이 疑心
 스러운것은 그 꼬불 꼬불한
 卷(?) 文字 아닌 筆線을 가
 지고 어떻게 그 많은 奇々妙
 妙한 말은 다 表現할가 하
 는점이다. 아무래도 거짓말
 같고 滑박한 暗記하였다가

후에 대충 들어 마추는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그러한 生
 覺當에 가질수 없었던 學友
 가 얼마전에 口會場禮를 간
 일이 있다. 그때 果 聚興의
 發言이 말설이 되서 取消하
 는니. 그런말한일이 없으니
 하고. 서로 싸우다가 速記錄은
 알고서야 解決된것을 도왔다
 또 알고보니 口會에서 行하
 는 모든 發言이 다 速記로
 記錄되어 있기 때문에 口會
 全入論爭이 있는때면 그것이
 唯一의 證據서 罪가 될뿐아니
 라 口會場 口會는때도 口會
 速記錄에 不及한것이 있을
 때는 그記錄이 考考材料로 使
 用된다는 말도 들었다. 또
 한 어느 講義時間에 歐美各
 口會 다너온 教授가 하는말
 이 歐美各口會의 學生들은 거
 이 全部가 速記를 잘해서
 講口會 같이 말설이 될러주
 어 노트를 必要가 없다고
 하는것을 들었다. 그후 나는

十三

있을가? 말하자면 그 勳章
 다른것을 讀本들은 알고 싶
 으리라 나는 하두 「營心」?
 이 말아서 方주에 陸海에
 되겠다고 特別 賞賚之品을
 품은것은 아마 口民學校 上
 級生으로 있을때부터 터무
 졌다 할것이다 그러던 中
 내가 養洞口民學校 卒業班이
 되었을때에 「少軍演習部」 라는
 雜誌上에서 選記에 관한 紹介
 가 있어 곧 이를 골뎠글려
 고 하였던것이다 當時는 選
 記料금이 한時間에 十圓이었
 는데 現時價로 말하면 역시
 도 十圓은 될것이다 오라려
 한값으로 따진다면 二萬圓은
 될것이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보자 選記를하면 高級職業으
 로 삼을수 있다고 생각되었
 거니와 經濟的條件이 不利한
 當時의 나로서는 學費을
 집기위한 勤勞한 副業이 피
 리라고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러나 口民學校 卒業生
 앞두고 中學校 入學試驗에
 余念이 없었기 때문에 一受
 進學白로 할것을 決定하였
 다

나는 이리하여 予定대로

十五才時 大東商業學校에 入
 學을 하고 그해 가을부터
 選記雜誌錄을 編輯한것이였다
 내가 = 學友이 되었을때는
 대법 速走도 현안하지 되었
 을때에 우리 學校에는 衆知
 師와 같은 印象을 주는 호
 리 초리가고 神戶神士團의
 美男子가 사라졌다. 알고보니
 그는 「中根」라는 日本의 中
 根選記學校長이였다 그는 日
 本全口를 坊坊曲曲 行脚하여
 許多한 會場과 더불어 選記
 冊子를 판고는 하였다 全校
 學生이 어느날 演習에 出席
 하였나 中根의 選記俵覽을
 들은것이였다 演說効果(?)는
 万矣이였다 거기 當부의 學
 生이 選記冊子를 샀다 그리
 고 學生들은 各種 別마중간
 大練習을 하더니 어떤지 모
 然히 그 癖이 식어가듯
 하였나

그理由는 弄어볼것도 없
 이 알가지음는가? 더욱나
 會場이 閉門하였고 거기에
 徹夜한 「마-스라」를 위한 編
 輯錄도 없기 다만 二才余 「四
 -지」의 장은 冊子에 全內
 容을 閉門시켰다는것이다. 初

== 낙 무 리 ==

◇ ◇ ◇ ◇
 「추운 것같이 춥다」고 불 한다 그렇다고 불라던 것
 도 아보련데 ----- 다만 「동양주 기 싫거든 폭박이나 깨
 지 말라」는 계기로 -----

◇ ◇ ◇ ◇
 「안방에 들어앉은 박일장이 좀더냐?」 간단다 발
 에 좀더 말지않게 태어난 품이라면 꽃과민증이 어
 리까드렸다 그야 개고리고 개고리고 울것이면 울것
 이니까 -----

◇ ◇ ◇ ◇
 「틀에 빠진 소경이 개헌을 나무란다」 따라 개헌이
 야 된 잘못이 있으랴만 --- 소경을 나무라면 소경
 아단 용맹이든 되지마지기름 -----

◇ ◇ ◇ ◇
 近視는 白頭山에 간다고 太白산에 오르고 天文
 學을 배운다라면서 鏡을 갖다가 牙痛에 빠진다니까...

◇ ◇ ◇ ◇
 昔年을 모르게 素齋이 밝았나보다. 齒이 아 무었
 건 말건 김메러 나갈 돈밭이 은짓해 두르누나..

十四





나의速記生活 20年史

金天漢



速記와 더불어 자라고 速記와 더불어 살고 있는 한 그 것은 아마 金天漢을 描寫하여 여기서는 말할 것이다 또 「速記」 하면 아마 金天漢을 聯想할 것이다. 그러럼 速記와 다른 아마 不可分의 因緣을 가졌나 보다.

이제 丁丑年의 새해를 마지하여 어느덧 三十五才라는 年輪을 經過하였다. 그와同時에 나의 速記生活은 二十才이란 말차자던 辰歲月을 越었다. 十才이면 少年도 老觀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나는 그의 그倍라는 生活을 이미 速記生活에 보낸 것이다.

이말에 처하여 曠者는 誇者이라고 해기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二十才의 速記生活을 越었다면 나의 나이 十才에 불과하 速記生活을 始

依했어야만 計算이 맞기때문이다. 勿論 誇張한 말이라고 보아도 좋고 또 事實로 받아도 無妨하다. 다만 나의 나이 十才가래 그때는 서울 植洞에 있는 大東商學校 一學年에 在學中이었는데 그 때에 나는 早稲田式速記講義錄을 編譯中이었고 이를 猛練할하기에 學日이 忙었다.

當時 「速記」란 都大體 무엇인지도 모르는 善가 아마 九十九%는 되었다고 해도 결코 거짓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絶對多數의 人士들은 漢字 한글로서만 速記의 筆記가 可能한줄로 알았지 이보다도 더욱 簡明한 「速記」란 것이 있는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速記에 밝은 디디게 되

있을까? 말하자면 그 動機
 라는 것을 讀者들은 알고 싶
 으리라 나는 하두 「夢心」²
 이 많아서 乃우에 應酬에
 되겠다고 特別 重賞之后 등
 품은 것은 아마 口民學校 上
 級生으로 있을 때부터 터득
 했다 할 것이다 그러던 중
 내가 雅洞 口民學校 卒業班이
 되었을 때에 「少年俱樂部」라는
 雜誌에서 選記에 關한 紹介
 가 있어 곧 이를 購得할려
 고 하였던 것이다 當時는 選
 記料金이 한 時間에 十圓이었
 는데 現時에도 달하면 적어
 도 五圓은 될 것이다 오러러
 볼 것으로 따진다면 二五圓은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選記를 하면 高級職業으
 로 살 수 있다고 感覺되었
 거니와 經濟的條件이 不利한
 當時의 나로서는 學費金을
 賺기 위한 最善한 劑劑이 되
 리라고 感覺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口民學校 卒業生은
 앞두고 中學校 入學試驗에
 余念이 없었기 때문에 一受
 進學希望을 決定하였
 다

나는 이리하여 卒業대로

十才 때 大東商業學校에 入
 學을 하고 그 때 가운뎃터
 選記雜誌를 購讀한 것이었다
 내가 一受 學費이 되었을 때
 是日 選記도 選안하게 되었
 을 때에 우리 學校에는 梁劑
 師의 같은 印象을 주는 호
 리 초리가고 特別 紳士風의
 美男子가 나타났다. 알고보니
 그는 「中根」라는 日本의 中
 根選記學校長이었다 그는 日
 本全口를 坊坊曲曲 行脚하여
 許多한 賣場과 더불어 選記
 冊子를 刊行한 하였다 全校
 學生이 어는날 讀生에 集會
 하였다 中根의 選記(選記)를
 듣는 것이었다 漢譯效果(?)는
 不爲이었다 거기 讀生의 學
 生이 選記冊子를 賣다 그리
 고 學費를 賺을 賣場 賣場안
 大練習을 하거나 어떤지 自
 然히 그 語이 習어가 不
 하였다

그理由는 問어볼 것도 없
 이 明白되겠는가? 너무나
 實位이 容易하였고 거기에
 最善한 「마-스타」를 賣한 儲
 蓄餘도 없지 다만 二十才「到
 -지」의 各은 冊子에 全內
 容을 包含시켰다는 것이다. 勿

步者에게 이같은 方式으로
해서 어떤 時期의 效果를
거둘수 있었느냐?

如何한 나쁜 別途로 早稲
田式 速記法을 「마-스라」 하고
二學年 各期에는 于先 教師
의 錄音을 速記文字化하는데
成功하였다. 二學年이 되자
英語번역같은것을 迅速히 速
記文字化하여 學生의 人氣를
떨어뜨린바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學生들이 물어보던 가
담에 기쁜 回答을 올렸던적
이 많았다.

내가 中學校 在學時는 季
末上 語學하다시피 하였으나
滿懷의 割草에 나가볼려고
해도 渡京時向과 이따나기때
문에 不可能하였다. 그래서
어찌까지의 나의 速記生活은
「內部破化時代」였었고 外部的
으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
다.

나의 速記가 社會生活化한
것은 學高生 時代부터 始
作되었다. 먼저 처음에 주목된
것이 同盟通信社 速記士 鍊鍊
州 合格하여 二十歲부터 約
三個月 勤務하는 동안 주로
東京으로부터의 通信 「부-쓰」

및 各地方의 口內都市亞부
러의 電話速記專員 하였다.
同社에 勤務中 乙支路大街에
있던 赤根速記事務所에 다니
면서 副業도 하였다. 그때는
大平洋戰爭時라 口內는 非常
한 經濟上의 打亂을 一般國
民이 感受한때였는데 나또
約 三個月間 濟州島에서 陸
軍에 強制徵集당하여 從軍中
-九四五年 八月十五日! 史上
的인 解放을 마치고와 同時
에 이해 九月初에 서울에
되돌아 왔다. 이리하여 나
의 速記生活은 끝났다. ---

解放을 마지한 當時의 吾
리나라의 混亂性은 그 極
을 盡하였다. 美 「하-지」 中將
이 韓口占領 美軍政司令官으
로 任命되고있을 동안에 口
內의 左翼分子는 繼承者대로
繼承하여 尺產勢力의 一般에
의 浸透은 輕視할수 없게
되었다.

解放이된 後에 亂立된 通
信社는 社內에什도 去,右派로
갈라지고 尙상치는 空氣가
승은것을 나쁜 보았다. 德政
時의 同盟通信社는 帝社되

고서부터 現在의 合同通信이 새로 組織되었다. 그리고 朝鮮通信과 解放通信이 새로 생겼다. 朝鮮通信은 中道的立場을 自처하였고 解放通信은 左翼의 氣勢가 濃厚하였다. 그后 朝鮮通信은 舊口通信으로 任 大務通信으로 變名되었고 解放通信社에서는 左派와 衝突을 이르던 右派法 及至는 論議회가 天立通信을 分立시켰다. 나그 兩社에는 合同通信에 在職하다가 公立通信으로 辭去했다. 그때 通信社에서는 東京의 「유-스」 「해디오」 及至 「엔포렌씨스코」 社外放送 「유-테리」 「런턴」 등의 社外放送을 運記하여 社信을 發行했는데 大人氣를 言했고 假令 「東京野 P= 共立」 社으로서 中央放送局에서도 隨이 報出되어 三大通信社로서의 威信을 加增하였다. 그當時 나의 月給은 五百圓이었는데 平職員은 最高二百圓程度였다.

그러던中 軍政時代의 우리 國會機能으로서 立法院이 廢止되자 그때 나는 全口運記者 役名中의 한 사람으로써

立法院 運記士로 就職되었다. 그때 運記士의 月俸은 八千圓 及至 九千圓이었는데 當時 事務局長의 俸給은 三十千圓이어서 運記士는 一般公務員의 羨望의 的이 되었다. 勿論 公立通信에 事務하였다. 立法院에 들어와 同時에 高麗遠距專門學院을 當時 考選期에 取初로 創設하였다. 運記士가 있던 時代이라 가르 大會 講演 座談會等에 참여하면 十數日을 要하는 것은 普通이었다.

그中 나의 運記生活에 있어서 最富의 記錄을 가진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李忠武公 紀念出版물을 發刊하여 當時의 孫元一 海軍參謀 總長 計由下에 無慮 一週日 向의 座談會를 發刊한 것이다. 此은 마치 災天之壤이라 가만히 있어도 巨震로 浩嘯이 나오는데 一週日을 두고 每日 八時向式 運記를 했으니 이 어찌 건널 일이랴. 그 苦勞는 筆者가 體驗하라 더 勿 史料에 서든 나로서 그것도 筆楮으로 運記를 担

十五內

당하였음에 있어서라 / 原稿
의 質은 甚하고 品은 巴
쁘고 量으로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約三個月
를 費하는 時日을 두고 번
역을 完了하였는데 그때 報
辭도 碌々히 라서 조그마한
질한채 살만한 品은 能히
되었었다

그래서 三仙洞 附近에 全黨
으로서 全黨을 치우고 比較的
輕便의 狀態가 良好하였거든
데 어찌 人爲로서 사람의
후·不후를 考慮하라 /

그것은 大體가 民族的
受難인 六·二五 變故이었다.
모든것은 水坑에 들어갔다
第一期 逃難學生의 卒業生도
제 輩出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口黨이 다시
九·二八 收復을 불패까지 나
는 서울·시골을 彷徨하면서
口黨이 다시 入城하였을때
나는 여러 同志와 口會에
復職하였다.

그러나 動亂中의 서울에서
의 口會生活은 三個月에 不
過하였다 一·四 台退과 터
부리 釜山은 臨時首都가 되
고 釜山市 中央에 判廳「호

달」에 合同留留하고 食事は
여기저기서 얻어먹기도 하고
自炊도 하고 買食도 하고
一定치를 못하였다 勿論 口
會에서의 俸給으로서만 生活
이 된다는것은 아마 虛言일
것이다.

나도 不得已 副業을 求하
였다 아니 내가 副業은 求
하기 難이 副業이 니를 決
가른 셈이다 得意한 日은「
九·一」을 遂起로서 干先 起滿邊
信社에서 義務가다가 中央通
信 科專通信科으로 勤勤하다
가 서울 遠都를 前由하여 口
際新聞社로 그 勤務처를 옮
기고 約三個月 동안 釜山 函函
에서 高遠 選記專門學校를 履
歷하였다

서울 遠都 때에는 不可不 事
情에 依하여 口會를 辭職하
였다 究은한 野人으로서 釜
山에 殘留한것이다

口際新聞社에서는 주로
時事辭說과 서울電話의 記錄
이었는데 約三個月前에 釜山
日報社로 그職은 옮기고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나
의 名은 許宗堉로 通信
部長. 키지아는 部長하나 없는



高麗速記普及狀況

總務部

우리나라 速記法식이 十餘種에 달한다함은 同門會員이나 在學生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敎多한 法式中에서 또한 實用에 供할수 있는 有能完全速記法식은 大韓速記協會에서 認定한 四種式(高麗式·速波式·서울식·中央式)에 不屬하다

이같은 完全速記법의 하나인 本高麗式 速記士의 分布狀況과 現在 速記敎育으로 后發養成을 하고 있는 實態를 略述하여 紹介하면

서울

解放前후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事變其他로 空間이 있었다) 서울市内 鍾路區 寶鏡洞에서 一般人을 對象으로 하는 高麗速記技術學院이 있어서 常時 五十餘名의 速記學徒가 있으며 本學院 卒業生으로서 社會에 進出하고 있는 速記士는 六期卒業을 거듭하여 十數名에 達하고

또한 서울에서만 서울市立 成人學校에서 三月間의 敎育課程으로 本式速記法을 採択하여 養成하고 있다

한편 市内 昌德商業高等學校에서는 速記科를 定科로 하여 本式을 採択講義를 하고 있어 어느 式에 비해 가장 旺盛한 敎育을 하고있어 앞으로의 期待되는바가 크다.

釜山

一 四日邊以右로 畿畿地 麻時 昌郡인 釜山市西面에 本式 速記學會 專攻하는 高麗速記專向學院을 4287 年에 開設-- 現在已 釜山日報社內에 附屬大義塾으로 하여 新學科로 速記學을 專攻하는 本式速記士 養成機關과 또한 釜山市內一洞에 高麗速記學院을 設置하여 速記士를 養成하고 있다. 一 四日邊右부터 釜山에서 輩출된 速記士는 二十數名으로서 市内 各機關各 破商을 掌理하고 있다 (12월-지에 刊)

受講生들의成分과

— 이 三 當 學 院 在 學 生 九 十 五 名 에 對 해 서 —

첫 次 年 令 別 로 보 면 十 九 歲 以 上 이 二 十 一 才 까 지 가 全 體 의 約 五 十 三 퍼 센 트 로 서 編 年 教 員 을 占 하 고 있 다 年 令 別 百 分 率 은 示 號 가 如 하 十 八 才 以 上 이 二 十 六 才 까 지 가

百 分 率 (%)	7.3	10.5	28.2	16.9	
	8.4	8.2	6.2	3.1	4.2
年 令 (歲)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 樣 한 分 佈 이 時 來 德 年 令 은 十 八 才 以 上 高 級 年 令 은 四 十 一 才 까 지 達 하 고 있 으 며 十 六 七 才 와 二 十 七 才 以 上 은 極 히 初 步 年 令 이 然 此 年 令 學 習 에 必 要 한 學 業 과 能 力 培 養 에 對 應 하 는 能 力 에 欠 缺 되 는 것 이 라 고 보 겠 다

學 生 은 大 學 生 이 가 장 많 고 다 음 으 로 高 中 高 在 의 順 序 이 다

百 分 率 (%)	1.0	7.4	21.0	27.3	37.9
	4.2	1.0			
學 生 年 令	小 學	中 學	高 在	高 中	大 在

大 學 大 卒

이 樣 보 면 高 級 卒 業 生 과 大 學 在 學 生 이 全 體 의 六 十 五 퍼 센 트 強 으 로 서 編 年 教 員 을 占 하 고 있 다

學 生 中 大 學 出 身 이 然 然 職 業 別 은 亦 異 學 生 이 通 常 教 員 으 로 五 十 八 名 九 十 퍼 센 트 고 다 음 이 無 職 三 十 一 名 一 十 퍼 센 트 인 데 이 無 職 은 大 部 分 이 高 等 學 校 出 身 으 로 서 大 學 에 進 學 하 지 못 한 學 生 들 이 占 하 고 있 다 其 中 公 務 員 實 業 家 등 이 各 種 職 業 에 從 事 하 고 있 는 形 勢 이 다

進 修 學 生 들 의 性 格 把 握 上 키 點 이 點 이 然 然 이 기 도 한 데 我 國 高 等 學 校 들 은 確 實 히 讀 書 에 熱 中 하 고 있 는 것 같 다 統 計 上 으 로 도 讀 書 가 斷 然 優 值 에 有 으 니 알 이 다 百 分 率 로 表 示 하 면

百 分 率 (%)	50.5	14.7	10.4	24.4
-----------	------	------	------	------

그들의 目標 !

設問에 依한 調査結果 나타난 計劃이다. ==

6.3 1.0 1.0 6.3
題 目 讀書 運動 映画 音樂 文學
遊藝 花筆 其他

여기에서 나타난바와같이
大概 動的인 面보다는 靜的
인 傾向性格의 所有者가 많
다고 보겠다 遊藝이나 花筆
가 주기는 稀少한 것이고 音樂
은 女性들에게 많다 運動에
는 氷氷 登山 散策 등이 주
였다

女學生의 入學比率은 約
十分之一 即 男學生 十名에
여학생 一名程度이며 大概
性格이 強硬해서 (男學生도 그
렇기는 하지만) 끝까지 善美
하게 배우며 男學生 못지않
게 勤勉하고 있는 現象이다
余談으로 男女學生들끼리 「로
맨스」를 얘기하자면 尙或
있기는 한데 大體的으로 冷
淡한지 小心인지 모르지만
成否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根本向題로서 그들이

逐記를 배워져 된 勤儉이란
가 輕路 그리고 目的專一의 欲
을 합쳐 본 結果 처음부터 逐
記士가 되겠다는 信心을 가
지고 入學하는 學生은 約
二十一 對一인 三 部 全體의
約 五分之一程度이고 남서자
는 學堂에 있어서 逐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든가 或은
常識으로 배워려는 사람 固
或 自任의 現業務上 달하지
면 言論機關·官公署 같은
데에서 必要에 依하여 入學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奇現象은 逐記를 배워
가지고 記者가 되겠다는 部
類이다 이것은 錯覺이라고
본다 記者가 逐記를 잘 할 앞
면 便利하고 有益한 것은 手
실이지만 逐記를 배웠다고 해
서 記者의 資格이 具備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까까지도 漫然한
好奇心에서 (12 頁-지에 계속)

十
文
收



座談會

在學生과 修了生들의

- △ 日時 檀紀 4220 年 2 月 21 日 (木)
- △ 場所 高麗產物技術學院
- △ 司會 金 今 男
- △ (參 席 者) 院長, 金屋讓先生, 李任範先生,
 一期生 一名, 三期生 一名, 四期生 四名,
 五期生 三名, 六期生 二名, 七期生 六名,
 八期(在學)五名, 九期(在學)五名.

座談內容

1. 在學中の活動事項 2. 在學中の "로만스"
 3. 速記練習課程은? 4. 當局에서 처간 向題
 5. 社會進出向題 6. 其他
- (本座談會는 紙面關係로 次男에 계속함)

※ 在學中에 活動事項 --- 組織的인 活動이 必要 ---

○ 司會 ..公私兩에 바빔신데도 不拘하고 이렇게 모여 주셔서
 大屬히 感謝합니다. 院長任과 여러 師任을 모시
 고 修了生과 在學生이 자리를 같이하여 서로
 狹窄的인 분위기에서 活潑한 意見을 交換할 수 있
 는 機會를 가지게 된것을 多幸으로 生覺합니다

十二外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있는 모든것을 다 털어놓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院長 ● 大端의 感謝합니다. 이형찬 모임을 가지게 된것은 學院 院史 生間以來 처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學院을 위해서한 여러가지 勳勞가 많은것을 알고 또한 좋은 勳勞를 많이 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拍手)

○ 司會 ● 먼저 在學時節의 坎이서 活潑運動에 對해서 말씀해보실까요?

○ 趙秉七 ● 우리一期生은 約四十名의 學生이 있었는데 學院에서 活潑이라는것은 事實 在學中에 있어서는 斷斷的인 事實과같은 學生들의 但々的인 여러가지 事情으로 變異가 있어서 坎 別級 運動會도 設치되고 生覺하고 있습니다.

○ 司會 ● 너무 堅固하시군요 (笑聲)

○ 金永國 ● 저는 三期出身인데 入學當時는 八十名 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校名은 여기가 아니고 專洞에서 처음 始創해가지고 三個月를 끝내고 다음에 三仙橋로 移居를해서 거기에서 三個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在學中에는 坎 서로 團에 變異이라는것이 굉장히 많지요.

○ 司會 ● 學院내에서의 組織을 들어서 움직인것은 없습니까?

○ 金永國 ● 그렇지요. 뭐 그쪽이는데 坎 坎에서 變異된 다른 組織은 단斷지 없었지요.

○ 韓鍾烈 ● 그리고보니 우리四期生들이 가장 人愛教로 防았고 學院內에서도 變異를해서 活潑하고 있었단것을 알습니다.

○ 金永國 ● 每編 自讀은 이 變래지... (笑聲)

○ 韓鍾烈 ● 음세로 서했든지 우리는 舊夜間 會에서 百二十名

인가 되었는데 그때에는 좀 一騎當千에 浮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다른 때 놓고 말입니
다. (笑聲) 그래서 그 때도 熱心히 했고 競爭이
라는 것은 정말 머리싸매고 했으니 까요 特別히 任
務을 提出 하지는 않았지만 代表者인 몇사람이 主
動이 되어 學校當局과의 連絡이라든가 學生들面
의 遊樂 激勵寫 活動을 많이 했습니다.

○ 柳留永 (五期生) •• 우리五期生들도 人異들로서나 또는 認識面으로 보
든지 아마 他期를 凌駕하였다고 보았습나다 그때
人異이 卅十八名인데 大學在學生들이 많아서 좀
團結力도 強하고 在學生들이 組織的으로 卷
을적
였지요 가끔 나오지 않은 同僚들이있으면 짐까지
라도 背아가보고 落伍되지 信졌음 事로서로 激
勵해가면서 그치했습니다 다른期와 符異하게 생
각하는것은 金曜크미다 一修의 '레슨' 가 있었
기때문에 學究的인面에 더한層 熱意를 가졌습니다

○ 司 會 •• 참 좋은 말씀입니다 六期는 어떻습니까?

○ 姜 爽 漢 (六期生) •• 저는 釜山에서 一期로 다니다가 여기에 六期로
編入하였는데 우리 同期生들은 人異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 또 다른 모른것이 있어서 그했
는지 別般活動도 못했습니다

○ 崔承運 (七期生) •• 七期生은 混合編成班이랄까요 大韓連記學術協會
主催 夏期無料講堂 講習會에 드러왔은 사람들로부
터 出究해가지고 서울成人學校 出身들은 已攝해가
지고 一六混成班을 만들었습니다 (笑聲)

○ 司 會 •• 그러면 여러군데에서 뽑힌 優秀한 사람들로 構
成되었으니까 天才들이 많이 뽐냈었군요

○ 朴 成 赫 (七期生) •• 그렇다고 볼수있지요 (笑聲) 如何든 英雄도
많았고 將領도 더러 있어서 至今까지도 좀 異
業한 "크롬"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活動은

士
內

다른期에 대해서 뒤떨어지지않게 하겠다고 생각합
니다

○ 韓鍾烈 •• 그러나 七期生中에서는 朴 成林氏가 總指揮官
(四期生) 였이군요 (笑聲)

○ 姜琴植 •• 先輩들의 活動狀況은 드르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八期生) 우리 八期生들은 떨어져 나간분이 없어서 그런지
團體가 간파되었습니다

○ 司會 •• 只今 九期生들은 以前에 任ottes을 送出해가지고
올해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어떻게 됩니까?

○ 金桑秀 •• 네. 잘채나가고 있습니다.
(九期生)

※ 在 學 中 에 있 었 든 잊 지 못 할 일 --- 로 맨 스 도 있 고

○ 趙秉七 •• 一期生中에서는 男學生과 女學生이 結婚할 人
(一期生) 람이 있었습니다 (笑聲) 물론 사람은 雙雙 같이
간살새 (笑聲) 그런데 이러한 學生들의 結婚
이라는 것은 좀처럼 해서 成立이 잘 안되는데도 특
히 運記를 배우는 女學生들은 美사이 없거든요
(笑聲) 示합니다. 여기애 나오신것은 除外하
고 말입니다 (笑聲)

○ 全永國 •• 우리는 처음 學期에서 朴永文 先生을 때에 가던날
(二期生) 이 지냈습니다 金先生이 一分商 一七〇 字程度
를 지냈고 레스트. 를 했더니 그런데 두번 들
렸거든요 처음에 좀 천천히 부르므로 나중에 는
빨리 들렸는데 내가 指名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
래 나중에 는 뭐 먹방으로 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수없이 먼저 答을 주지고 읽어버렸
지요 (笑聲)

○ 金裕赫 •• 學校에 다분적에 "간담구. 도 판했겠는데 -- (

(五期生) 笑聲)

○ 洪乙姬 •• 우리 連署會에 기쁜스고 練習해온 보람도 없이 不

(五期生) 一次市議會選記士採用試驗에 분기종기 落選의 區分을 마친 것이 二次選考에 合格한 成績보다도 一生을 通해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司會 •• 一次試驗에가 몇일이 되는대입니까?

○ 洪乙姬 •• 六日이 榜了하고 두달인가 되는데입니다.

(五期生)

○ 洪性培 •• 지금 生院 하면 참 웃음밖에 안나지만 不圖 百亨은 웃음과에 市公廳에서 열린 肺病政治經濟會나 或은 무슨 討論會나 이런데에는 모조리 모자다니면서 全部 읽어보셨다고 애쓰는 그때일이 정말 잊어지지 않는군요

○ 高德發 •• 정말 한참 재미있어하는 별일이 다있지요 나는 언젠가 漢州를 타고가다가 모에서 얘기하고있는 두女學生들의 對話를 한참 머리속에 남겨쓰다보니가 어서 내려야할 支路入口를 慌신 지나서 서른馱까지 가버렸습니다 (笑聲)

○ 徐智英 •• 나는 二個月 동안 通信政廳을 만다가 通學을려고 하니가 그때에 兪先生이 계신가요? 아마 안일겠습, 한달이 되고 "지금 우왕아 할방으로, 그래서 현재 남에게 자기있는 性味라 우 마라간다면데 화가나서 해보겠다고 講把를 해놓고 박상나외보니 정말 너무나 兪方의 弄弄가 분해서 놀랐습니다. 그때도 壯談한것이 있어서 이쁜악골고했더니 三個月 후에는 겨우 마라가고 말았습니다

○ 司會 •• 어지간하군 (笑聲) 通信滿英錄으로 배운사람중에서도 優秀한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 院長 •• 많지요 在學生보다 오차려 時機的으로 한기번씩 빨리알고 잘하게되니까 苦力한후면 잘할수있지요

○ 朴成務 •• 昨年 學院長의 婚儀에의 喜報를 들은일을 얘기해

十七外

(七期生) 아라겠습니다 向期生이나 先輩나 講師와의 接觸할
機會가 絶로 없었기때문에 그러한機會에 서로의
和氣와 相互融會를 꾀하려하고 내편에는 속임은
가지고 夢見했었으나 座席이 어촌할때에 해
어지게되어 어떤지 서운하였던 마음을 獨的으로
에웠던일이 가끔 생각키운 합니다

※ 練習 課程에 있어서의 態度

- 司會 •• 六日月까지는 基本課程이니가 別다른것이 없지만
파치고나서 速度練習할적에는 하로 平均 時間
向이나 했습니다
- 沢性培 •• 우리는 二時間向 〇五 四時間 --- 많이할때에는
(四期生) 아침부터 저녁까지 七·八時間도 했습니다
- 柳智求 •• 우리 五期生들은 하로 平均 五·六時間했습니다
(五期生) 참 할거머리같이 했습니다 (笑聲)
- 金元河 •• 저이는 요새 지역에 모여서 한두시간쯤 하고있
(七期生) 습니다 좀 많이할때에는 세시간도 합니다
- 李柱範 •• 六日月 파치고나서 速度練習할때에는 그저 하로
三時間 程度만 하면 充分하지 너무 오래한다고
해서 眞實 그만큼 二은것이나나와 으려 檢勞
를 우리가면서 그代向 練習하는 時間中에는 體
차로 雜音을 버리고 練習에만 沒頭하면 効果
가 높을것이에요

※ 學院當局에 對한 여러가지 問題

- 司會 •• 다음은 學院當局에 對한 여러가지 問題를 말씀해보
시지요
- 韓鍾熙 •• 首先 첫印象부터 말하지만 처음 여기오니까 學
(四期生) 院 運營에 있어서 或은 事務的인 辭次라든가 하
는것이 實 能率的으로 行해나가고있고 對外的인
 實效은 大體히 良心的이라든것을 느꼈습니다 其

을 實施할 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아침에 악문죽선 출가로 학생들이 많이 벽적 거러서 흐트러졌지요 그리고 그때에는 講堂이앞에 (學院앞에) 강사반이 우글우글했는데 지금은 짐 풀을 지어다서 아주 깨끗해진것이 좋고 뭐 약 칼리플 못억게커서 좀 서운하지만 --- (笑聲)

○ 韓忠南 (八學生)

•• 지금 우리 배후는데 있어서 그 마음이라든가 時間이라든가 速度같은것은 너무이 조금도 없습니 다 그런데 한가지 良心이라고 할과 저의 仁人見 들 말하면 들 仁人的인 指導를 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 司會

•• 仁人的인 指導라든것은 授業時間中말인가로 그렇지 않으면 時間外의 말인가로

○ 韓忠南

•• 그러나 時間外에도 그렇고요 時間內에 있어서도 일일이 仁人을 指導한다든것이 꼭 어려울만이지 만 如何든 仁人的인 指導를 받았으면하는 希望 을 가지고 있습니다

○ 趙秉七 (-學生)

•• 그것은 아마 지금 中央社理學院이라고 해서치고 實施하는데에는 熟方式같은거라면 學生이 不遜 妄名산되니까 仁人指導가 되겠지만 우리學院 에서는 이렇게 많은 學生들을 時間內에 있어서 仁人的인 指導를하는것이 困難한문제야 아닐까요 勿論 基礎라든가 또는 基本課程을 究우하고는 후에는 時間々々으로는 仁人的으로 指導를 할수 도있고 또한 지금도하고있지만 아마 알수있지 仁 人的지도한다는것은 어렵겠표

○ 韓忠南

•• 時間內뿐만아니라 時間外에도 말입니다.

○ 韓鍾烈 (四學生)

•• 그것은 在學生들의 希望에 따라서 또는 時間的인 余裕가 있는사람이라고하면 講師나 助講들이 指導 할수있는 문제라고 生覽합니다 나도 가끔 나

十八

와서 여러번 말을 보았지만 何如론 時間外에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힘자라는데까지 도와드리
겠습니다.

○ 金泰秀 (五期生) . . . 그런데 처음에는 出席을 불렀는데 요새는 부르자
않으니 까요 이것은 요회에 人들들은 했지만 죄우
지운 것에서 누가누가 라는것을 알기위해서라도
出席을 불러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알리지 부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時向浪
를같아서 그러라고 指示로서 부르는것은 亦도 이
름을 指摘하는것이 아니니까 마한가지이고 그러
서 出席부에다가 그대로 누가出席하고 누가 缺
席에라는것만 적고있죠.

○ 金裕林 (五期生) . . . 우리는 처음드러왔던날 協會에 계시는 各部長님
들이 오셔서 여러가지 좋은말씀을 해주시고 또
講師 여러분의 敎育觀이 다른가 敎育을 받자리없이
관 해워준 學生들을봐서 나는 그 어름리는 學生
들 外기에 위해서 大端히 기뻐했습니다

○ 司會 . . . 다음은 가장 문제가되고 있는것이 修了生에 대한것이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修了生側에서 어디를
해가해보시지요

○ 崔承延 (七期生) . . . 大田의 定規課程을 마치고나면 課外練習에 必用한
場所의 轉施이라든가 또는 練習課程에 있어서의
지도를 積極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林春愛 (七期生) . . . 서울부린들은 轉에도할 義務가 있다고 하지않어요
(笑聲) 그러니까 定規課程은 마쳤더라도 아주
完全한 遊樂士가 되기까지 좀더 勉勵的인 指導
가 있었으면 합니다 現在 每期마다 나오는 말
은 修了生들을 다 제各의 場所를 轉施한다는것은
어렵겠지만 ---

○ 院長 . . . 잘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는 많은 苦心을 가지

(74)

앞으로는 좀더 任實공의 活潑한 活動의 努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社會에 指出하는 會員도 늘어
가고 세대가 變. 커지니한은 ---

—(次 考 樣 樣)—

X X X X X

△ 作品募集

I 論文 二百字原稿紙十枚內外.

- 1) 速記班에 關한 것 (規定發表 · 其他)
- 2) 學報에 關한 것
- 3) 學院 · 同門會 · 協會에 關한 것.
- 4) 其他

II 一般作品.

- 1) 詩 · 小說 · 隨筆 · 公言 · 外史記事 · 戲曲 ·
笑話 · 諷刺記 · 感想文 · 紀行文 ·

原稿隨時接受.

△ 院外生 (通信學生) 諸位 卽!

I 다음事項을 記錄하여 送付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 1) 通信教育을 받게 된 動機 (經路) 와 目的.
- 2) 受講中의 感想
- 3) 學院當局에 對한 希望事項
- 4) 趣味.
- 5) 住所, 姓名, 性別, 現職, 學年, 年令.

送付는 同門會로!

(一般作品의 投稿을 歡迎합니다)

“ 흰 구름 ”

오 보라 떠나가는 친구들을
 이겨 버렸던 아름다운 노래의
 가쁜 멜로디와도 같이
 푸른 하늘 멀리 떠가누나

오랜 여행 끝에 나그네의
 모든 선함과 슬픔을 느꼈던
 사람이 많고 선 * 자 친구들의
 심정을 이해치 못할런지

나는 태양과 바다와 바람과 같이
 저 하얀 구름을 사랑 하였나
 그들은 모두 정처없는 나그네의
 자매이며 한 사람 까닭이다





“編輯后記”



발서 품인가보다 그리고보니 한 송이는 이 송원과 더불어 보일심 ---

X X X

바야흐로 온갖한 바람스치고 흥행기 흥기고 새 생명의 힘찬 躍動이 보이는 이 時節의 高懸參戰 殊死博가 나옴은 우리의 殊死文化 奮發을 카타어 일마나 가련한이냐?

X X X

되도록이면 完全하게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않은 못하여 먼저 謝絶한다

X X X

그러나 斷面에 오든 難夷을 무릅쓰고 4각의 心齋를 다 기울린 努力의 船隻이라 自信하며 敢히 彼岸앞까지 내놓는다. (歌)

X X X

八十回이전에 가까운 尙殘缺 아무를 보게되니 感復을 불관 바르며 어찌 이 夢靨의 兪혹이 아니리오.

X X X

勿論 到이 지수가 온었다는 데세도 그리려니와 그보다도 內容面으로 보아 斷然 佛羅的인 兪혹을 뜻이흐다는데 차져서 우리 讀群수으로서도 眞實 나뉘었던 기쁨을 찾아보며 자랑하던 자랑을 하고싶다

X X X

우리는 限수있는 限 하나라도 더 많이 兪할려고 애썼으나 剩餘된 紙面與係도 不得已 사귀은 作品들을 여럿 잃어버린 恨이 대

X X X

其中 特別히 손꼽아 본다면 「陸軍高級副官學校學生들의 實錄(雄肥)」와 「승려선記法式의 특징」을 비롯하여 가까운 恨을 부쳐못한다 (8 회지에 계속)

X X X

1,000
800
10
16 20
60
15

植紀四二九〇年三月二五日印刷
續紀四二九〇年四月一日發行
發行處 高麗速記學會
編輯人 高麗速記同門會 文化部

93

呈誌

速記學報

第三號

金鎮基

書下



高麗速記學會刊

高 麗

速 記 學 報

第 3 號

高麗速記學會刊



• 卷頭言	金今勇	5
(提言) 速記學報에 寄함	金秉熙	6
民議員이 본 速記士	鄭 燾	9
議會政治와 速記	張基商	15
議會에 있어서 速記의 必要性	金瑄鎔	13
速記와 新聞	尹 壽奎	18
速記에 成功 하려면	金 領基	24
既成 速記士의 告白	尹 壽鎭	39
現職에서 의 느낌	洪 乙 捷	44
速記하는 學友를 보고	姜 乾善	52
受講生들의 成分과 그들의 目標		62
隨筆 解 士	Y 生	47



1
4



— (次)  —

• 新 年 度 的 計 劃 金 星 漢 ... 21

高 麗 式 速 記 的 普 及 狀 況 61

論
壇

現 代 學 徒 的 速 記 觀 崔 承 遠 ... 25

速 記 術 及 錄 音 機 金 裕 赫 ... 28

現 代 々 此 速 記 的 緊 要 性 嚴 春 濤 ... 32

總 會 를 앞 두고 宋 炳 午 ... 35

感 懷 文

燈 臺 를 밑 에서 柳 智 永 ... 41

詩

한 子 름 75

나 的 速 記 生 活 20 年 史 金 天 庚 ... 55

((座 談 會)) 64

(序) (後 記) 69

편 집 후 기 78

(祝)

(三)

(刊)

善隣商業高等學校
校長 秉 熙 晟 外
教職員 一同

(祝)

(三)

(刊)

高麗速記技術學院
院長 金 星 漢
外職員 一同

(祝)

(三)

(刊)

高麗速記技術學院
釜山分院
分院長 姜 基 孫
外職員 一同

外

卷 頭 言

한복음의 물과 한그루 그늘 밑에 너의 발길을 멈추지말라 또
은곳에位를한 硯臺를 알고 그리고서 그硯臺를 肯定하는곳에
痛癢이 울지.라도 꿈은 소리쳐 부르는도다.

太陽은 라고 煙臺은 휘돌아치는 끝닿을곳 모르는 砂漠이로
되 어느 한구석에 설아 地獄에 그는 門앞에라도 불덩이 처
람 다른 夢을 주지며 碎지질것만같은 이 조그만 世羅의 鼓
울을 어루만져 줄이도 있으려니... 設使 너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한이 있다한들 꼭 가아할필이랴면 한복음의 물을 백번
에 마시고 천질 모래가 휘덮드라도 가고 또 가새만 한다.

보의 結構은 相反하는것이 싸움이고 그結果 所長가는것이라고
해서 보다도 두려워함은 後悔함이요 물리슴은 後悔이저한 背
反함이니...

이름도 모를 모래심우에 자취도 없이 허무히 사라진 그림
자들이 불어도 없는꿈을 안고 가버린것들 닮아려는가? 꿈은
잊었던것이라고 웃어버려야하는가?

꿈을 위해서 꿈을 좇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 하는
것은 未知의 夢이라고해서도 아니지만... 하늘의 만복이런 저
많은 별빛이 數千萬 數百萬 數千 數百 數萬에 輝映되었으리라는 너의 말들
들고 지금은 그의 存在身體도 모르는 보잘것 없는 知識인 夢
정 음마저 버리기에는 너무도 사랑스러운가.

한복음 물을마시고 나면 꿈도 眠床발림은 夢의를 깨매려는
가!

다른 太陽은 피할지라도 꿈없는 너의권은 다조망할일밖이다.

(金 今 秀)

다.

이제 逐記界도 차츰 被
후가 임하고 自覺을 들을 수
있는 여류가 증가된 것 같습
니다 마는 여가에서 또다시
우리는 逐記學界의 발전에
위하여 非常한 研究와 努力
이 必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三才의
逐記能力을 目標로 逐記士兼
成事業을 계속하였는데 필자
가 支那로 民謠界에서 識會
界의 逐記를 하물한 바에
依하면 十分位에 따라우리의
逐記力이라는 實로 高速度인
을 發現하고 逐記와 正確한
信條로 하는 逐記에 있어 이제
처음부터 段階가 되게
하였음을 느꼈습니다.

高麗式逐記는 逐記界에 顯
著한 나라인 우수한 逐記이
며 金羅漢院長의 주조한 努
力으로 傑才를 輩出하여 社
會各方面에서 많은 活躍을
하여 그 功勞는 우리나라
逐記界를 장식할 것이며 이제
黃誌가 담당할 逐記學界의
發展의 時局이 時急히 이루어
질 것은 기대하며 同門校
友들의 많은 活躍이 成功을
이룬 것을 굳게 믿습니다.

近來 逐記는 知識層 被
文學界에는 相當히 逐記界
의 希望이 높아지고 있는 傾向
이 보이는데 좋은 現象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對象으로 逐記에 처한 正當한
認識을 품으므로 指導하고
逐記學界의 普及에 努力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미 黃學院
에서는 逐記教育의 計劃을 어
서 逐記學界의 普及에 새로운
方案을 講究하였음은 時
宜을 얻은 것으로서 逐記學界
의 普及에 劃期的 效果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이리하여 日就月長하는 黃
學院과 黃學院이 낳은 逐記
傑才를 輩出으로 하는 黃誌가
一面 學術界로서의 使命인
高麗式逐記의 完備를 이룩할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나라
逐記學界의 象牙塔을 쌓는
結果가 될 것이며 他面 黃誌
를 통한 逐記學界에 처한
正當한 認識은 一般에게 逐
記學術界의 發達과 意氣를
일으키는 結果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文化向上에 貢獻되
는바 큰 莫缺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黃誌의 位

(8)

圖와 實務가 크고 또 무거운바가 있는 것입니다.

實務의 運轉한 發展은 아직 初期에 불과했다고 볼수있는 選記界의 漸次式의 發展은 經營과 措對를 担担하는 것으로서 短期日안에 우리나라 選記의 市場性을 示揚하여 實務의 選記學界의 發展을 期約하는 家徽이라고

◇ ◇

(51 頁-지의 續(續) 用)

一部에서는 無理함이 강하다 하니 白紙에 無度하게 하다는니 하는 曲解도 하나 氏의 淺學한 性情과 阿諛함을 모르는 愚은 心構은 理解하면 諒할 餘가 없다고 首肯할 것이 다

처음에 東邦選記를 배우고 한-年向이나 成績은 不成하였으나 阿諛式의 非科學性과

◇ ◇

(76 頁-지의 續(續))

「결론으로」 文字그 形의 主構를 보내주신 氏 叔勇 如 瀆 先生과 氏 叔英 事務 必選記課에 用신 여러분과 事務科 課長 叔 翁 容 先生과 貴社 社會 各人에 對해서 感謝하며 프린트를 送아 주신 翁 典烈 先生께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續)

◇ ◇

할수있는것도 實務가 選記界에 占하는 比重이 甚로 重아가는 家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부 丁 尙書에 있어서의 實務의 發展바 勿과 計劃이 實現成就하여 學術研究로서 選記와 校次 誌로서 面目을 變換하시기를 希冀합니다.

◇ ◇

非能率은 甚大하고 한번

「바스타」 하기도 힘든 選記인데 다시 高麗式을 執하여 不過 四日 月만에 完全 譯得한 天才로서 八二 年 以來 氏 叔虎 選記課에서 活躍하고 있다

氏의 學問을 爲하여 하루 속히 스킵트음이 기록되게 되면 巴리는 것은 望望의 心構도 하나리라

(忘言多謝)

◇ ◇

社會一般이본 速記規

“民議員이본 速記士”

民議院 議員 鄭 滄



나는 速記士와 같은 國線
 이 있다. 그가 많은 첫째 내
 가 每日같이 國會에서 速記
 士의 도록을 받고 있기 때문
 이며 둘째는 내가 速記 速
 記 技術 教育을 指導 相當해 왔
 다는 파거를 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나는 이처럼
 困難이 많은 速記士를 平素
 에 尊敬하고 또한 그들을 理
 解하고 있는 것이다. 政治的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速記
 士의 使命과 功績이 突出
 크다는 것을 누구도 否認
 할 것이다. 速記士들은 國會
 를 비롯하여 他方會議과
 各機關에서 必지 隨히 그
 任에 忠實하고 있
 다. 내가 본 速記士는 分期
 히 眞實한 人面이다. 그들
 의 公的 生活에 是 眞實한
 의 자기도 없다. 남의 瑣
 說과 談論을 그대로 文字

로 그려본들 거기서 조금만
 치의 거짓 兇見도 덧붙이지
 않은 것이 速記士의 使命이라
 고하면 速記士의 生活은 宿
 命的으로 거짓이 있을 수 없
 으며 「當爲」그러므로 眞實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速記士의 거짓 없는 眞實성
 에 佩服이 두터운 것이다.
 初意國會初開에는 速記士에
 對하여 나는 甚々 不平도
 하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에 速記文化가 幼稚한 段階
 에 있어서 速記技術이 不足
 하여 國會議員의 瑣說內容과
 速記內容이 一致하지 않는 경
 우가 甚々 있었든 까닭으로
 國會議員들이 不平을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에 對하
 면 有能한 速記士가 많은
 까닭에 速記技術을 全적으로
 信任할 수 있게 되었으니 速記
 士를 對해서 보다도 國會

